프롤로그

생명사역

1989년 옥한흠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랑의교회에서 설교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말의 총신신대원 교수로서 옥 목사님의 부탁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옥 목사님께서는 매주 설교해 줄 것을 부탁하셨으나 저는 학교의 강의와 매 주일 설교(1–4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의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마치 스펀지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달게 쭉쭉 빨아들이던지, 설교할 때 힘들기는 했지만 신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경기도 과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랑의교회에 성도중 과천에 살고계신 순장 몇 분이 어느 날 저의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저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순장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밤 12시라도 순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랑의교회 순장들을 보고, ‘아, 옥 목사님께서 정말 목회를 잘 하셨구나! 순장 수준이 목회자 수준이네!’라면서 감탄했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도대체 어떤 목회를 하시기에 순장들이 저렇게 충성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이 평신도를 교만하게 만들어 목회자를 우습게보게 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도 했었지만, 사랑의교회 ‘스폰지’ 같은 교인들과 ‘충성스러운’ 순장들을 보고 그런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제게 “권 목사님, 목회가 뭔지 아세요? 목회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사랑의교회에서 설교하는 동안 ‘옥 목사님 후임으로 권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혀 목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목회가 뭔지 아세요?”라는 질문은 늘 저의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후 수십 권의 미래학 책을 읽고 나서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붙잡고 5년 동안 “하나님, 실천적 지식인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동안,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목회하지 않겠느냐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동신교회의 장로님들이 “교수님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모시고 싶은데, 총신 총장이 되실 분께서 우리 교회 같은 곳은 오시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기도는 해 보시지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는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확실한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한흠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 드렸더니 “서울에도 목회할 곳이 많은데 왜 굳이 대구까지 가십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확실한 부르심을 받아 내려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구동신교회 목회가 이제 17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임하기 전 “목회가 뭔지 아세요?”라고 하시던 옥한흠 목사님의 질문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장고(長考) 끝에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 목회를 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 목회는 한국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 이전의 한국교회 목회는 목회자 중심의 목회였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평신도는 목회를 구경하거나 평가하는 정도였습니다.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 목회는 평신도를 훈련하여 깨워서 ‘작은 목회자’로 세워 목회자와 함께 목회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 목회를 하면서 대구동신교회가 놀랍게 변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교인들이 “제가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장로님들까지 “제가 변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질적으로 성숙하면서 양적으로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제자훈련을 알게 하신 옥한흠 목사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제 나름대로 ‘생명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총신신대원에서 교수로 14년간 있을 때 성경해석학도 가르쳤는데, 그때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활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반드시 생명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라고 확신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때의 그 확신에 따라 제가 하는 제자훈련 목회에 ‘생명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명사역’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마 9:35](https://ref.ly/logosref/Bible.Mt9.35); [4:23](https://ref.ly/logosref/Bible.Mt4.23)). ‘생명사역’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예수 믿게 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키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으로 ‘고치는’ 사역입니다.

저는 생명사역을 위한 제자훈련을 하면서 ‘생명사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요즈음 ‘핵심개념’이니 ‘사명진술’이니 ‘미션’이니 ‘비전’이니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즈음의 용어로 생명사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심한 것입니다.

생명사역 제자훈련 목회를 할 때 ‘생명사역’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목회자와 함께 생명사역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생명사역을 설명할 도구를 찾다가 윌 만치니(Will Mancini)의 〈독특한 교회〉(*Church Unique*)에 나오는 ‘비전의 길’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명함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생명사역의 핵심 개념은 생명, 즉 예수의 생명입니다. 생명사역은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미션과 비전이 혼돈될 때가 많았습니다. 위의 ‘비전의 길’을 통해 이 혼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은 ‘산 정상’입니다. 미션은 ‘할 일’입니다. 비전은 ‘어디로?’이고, 미션은 ‘무엇을?’입니다.

대구동신교회의 미션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비전은 ‘3·7비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https://ref.ly/logosref/Bible.2Sa7)(사무엘에서 ‘삼’을 가져오고, [7장](https://ref.ly/logosref/Bible.2Sa7)에서 ‘칠’을 가져옴)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7년 동안 ‘3·7비전’을 추진하여 대구동신교회의 ‘비전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윌 만치니의 도표를 한국식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의 6하 원칙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사역 6각형’입니다.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원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생명사역 6각형 도표를 만들어서 제시하니, 교인들은 생명사역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생명사역에 더욱 분명하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명사역 제자훈련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두세 사람의 교인을 뺏긴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으므로 심각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천지는 사람을 9개월 만에 완전히 바꾸어 놓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신천지는 9개월 만에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심지어 부모를 두드려 패면서도 신천지 포교활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정통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50년 전의 그 놈이 지금의 그놈이다!”라고 자조(自嘲)한 대로, 교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교수시절 일부 이념에 빠진 대학생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2개월 이념교육을 받고 돌변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 후보 자동차 앞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이념은 2개월 만에, 신천지는 9개월 만에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목회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 놓고 오래 고심한 끝에 ‘아, 생각의 틀이지! 생각의 틀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는구나!’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는 의식하건 못하건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삽니다. ‘생각의 틀’은 가치관이고 신념입니다. 질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고 있는 ‘전제’입니다. 저는 이런 각성을 하면서 ‘생각의 틀 바꾸기’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한흠 목사님도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하셨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생각의 틀’을 바꾸실 때 결국 성경의 체계적인 신학을 교인들에게 제자훈련으로 새겨주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옥 목사님은 ‘작은 조직신학’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총체적 조직신학’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성경 전체의 사상을 ‘체계적 신학의 틀’로 교육하고 훈련하여 교인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설교와 교육과 훈련을 할 때 화면에 자막을 띄우면서 ‘신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현장에서 하는 ‘신학 훈련’이 신학교의 신학 훈련과 다른 점은 신학교에서 하던 것보다 더 쉽고, 더 재미있고, 생활에 더 잘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쉽고, 재미있고, 생활에 적용해서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기독교윤리 등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 바꾸기’ 훈련은 신학과 목회를 접목하는 훈련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체계적인 신학의 틀로 교인들에게 전하여 교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학과 목회를 접목하는 ‘생각의 틀 바꾸기’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텍스트, 인간의 얼굴, 사람,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하나님의 체계적인 말씀으로 교인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면 교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잠 4:23](https://ref.ly/logosref/Bible.Pr4.23)).

저는 성경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여 교인들의 ‘생각의 틀’을 바꿈으로 교인들의 삶을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변했고 저의 아내가 변했고 저의 두 딸이 변했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변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의 틀 바꾸기 제자훈련으로 생명사역을 할 때 ‘성경(Bible)을 강해(Exposition)해서 성령(Spirit)으로 변화(Transformation)시키는 BEST 생명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을 둘 다 강조하면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명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었습니다.

‘생명사역을 하니, 정말 생명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회가 됩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제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으로 오해될까 몹시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이것은 17년 동안 신학과 목회를 접목한 결과에 대한 확신입니다. 한국교회가 신학과 목회를 접목하면 반드시 변화한다는 확신입니다. 목회자가 변하고 교인이 변한다는 확신입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경험적 확신입니다.

〈생명사역〉을 제대로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생명사역? 누군 생명사역 안 하나? 다 생명사역 하지!’라고 던져 버리지 마시고, 정독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생명사역자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명사역〉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대구동신교회 교역자 장로 평신도 생명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생명사역훈련원에서 기획, 집필, 교정, 편집, 입력 등 작업을 충성스럽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생명사역〉이 나오기까지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7년 4월 비전산 자락에서

대구동신교회 권 성 수 목사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잠언 23:6–8**](https://ref.ly/logosref/Bible.Pr23.6-8)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데로 돌아가리라

미국의 저술가, 세일즈맨, 동기유발 강사 지그 지글러(Zig Ziglar, 1926–2012)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aptitude)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attitude)가 여러분의 고도(altitude)를 결정합니다.”

여기 세 단어가 나옵니다. 알파벳 a로 시작하여 -titude로 끝나는 단어들인데, aptitude (능력), attitude (태도), altitude (고도)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a 다음의 한 글자(p, t, l)만 다른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타고난 능력이든 획득한 능력이든, 자신의 능력(aptitude)이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지위 등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를, 즉 고도(altitude, 高度)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갖거나 기술을 연마하여 실력을 갖추면 큰 인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그 지글러는 실력이 아니라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글러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무엇을 더 잘한다거나 무엇을 고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필연적인 것, 불가피한 것, 어쩔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의 현(絃, string)을 켜는 것입니다. 그 현(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내게 일어나는 10%의 어떤 것과 그것에 반응을 보이는 90%로 이루어집니다. 일어나는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찰스 스윈돌(Charles Swind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태도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상황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외모, 타고난 능력, 혹은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가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매일 그날로부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겸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1842–1910)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자기의 태도를 바꾸면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주의 신경정신과 의사 빅톨 프랭클(Viktor Frankl) 박사를 보아도 이 점이 분명합니다. 빅톨 프랭클 박사는 나치 시대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미 추구〉(*Man’s Search for Meaning*)라는 책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장 잔인하고 무참한 고문을 당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 간수들이 무슨 짓을 하건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자유는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 태도가 중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왜 태도가 중요합니까? 태도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1) 마음의 표현**

본문 [잠언 23장 7](https://ref.ly/logosref/Bible.Pr2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기 ‘대저’란 ‘대체로 보아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한글개역개정판의 ‘대저’는 ‘왜냐하면(키)’입니다. 영어 역본도 그것을 가벼운 이유를 가리키는 ‘for’로 번역했습니다. ‘위인’이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데 이것도 그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의 생각’이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성경적으로 영혼, 또는 속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감정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되는 태도를 말투라고 하며 글로 표현되는 태도를 어조(tone)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어조’라는 단어가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말투와 연결시켜 보았더니 실감이 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령 “잘 한다!”라고 할 때 정말 잘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것이 칭찬의 말투가 될 수도 있고 야유의 말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할 때 그것은 고압적인 말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압적인 말투는 그 마음의 교만과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태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력과 기술과 경험이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요즈음은 사람을 고용할 때 ‘마음을 고용하라’(Hire the heart)고 합니다. 이것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비교하여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몸의 자세와 유사합니다. 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2) 자세와 태도**

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몸의 건강이 자세와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가 나쁘면 요통이나 어깨 결림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면 몸의 하중이 허리의 한쪽에만 실려 요통을 유발합니다. 한쪽 뒷주머니에 늘 지갑을 넣고 다니면 골반에 변위가 생깁니다. 한쪽 어깨로만 가방을 매면 척추측만증이 생깁니다.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면 연골연회증이 생깁니다. 잠을 잘 때의 나쁜 자세는 척추가 구부러지게 하거나 근육이나 인대의 이상을 초래해 목이나 어깨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몸의 잘못된 자세를 계속 반복하여 습관이 되면 그것이 통증이나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바른 자세를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의 바른 자세는 몸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른 자세가 바른 습관이 되고 바른 습관이 몸이 건강한 바른 생활이 됩니다.

몸의 자세가 건강에 중요한 것처럼 마음의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항상 표정에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정에 어두운 그늘이 있는 사람을 어느 회사가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표정으로 고객들을 상대할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자녀와 가정 때문에 늘 걱정하면 그 마음이 어두운 그늘로 표정에 나타납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를 어떤 교인들이 따르고 싶겠습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나도 불행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찌푸릴 대로 찌푸린 표정을 흔히 송충이 씹어 먹은 듯한 표정이라고 합니다. 늘 송충이 씹어 먹은 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배우자나 사원이나 교사나 지도자로 적합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독재자라면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회에서 그런 사람은 결코 큰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어두운 표정, 늘 그늘진 표정, 늘 싸늘한 표정, 늘 나무라는 표정, 늘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 이런 표정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든 지도자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결혼도 어려울 것입니다.

늘 사랑스럽다는 표정, 늘 너 때문에 행복하다는 표정, 늘 그대로 잘될 것이라는 표정, 늘 따스하고 밝은 표정, 늘 고마워하는 표정 등. 이렇게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 좋은 태도는 취업과 결혼과 지도력에 매우 요긴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태도의 기능**

동기유발 강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맥스웰(John Maxwell)은 태도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 태도가 할 수 없는 것**

①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페라에서 노래하고 싶은 태도가 있어도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오페라에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②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경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며 경험이 없는 젊은 사역자들을 세웠을 때, 경험이 부족한 그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경험이 없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③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성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장한 후에 그가 꿈꾸던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좋은 꿈만 꾸어서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④ 여러분의 태도는 저절로 좋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소의 가장 어려운 점은 우유를 짠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유를 짜면 다시 우유를 짜야 합니다. 계속하여 우유를 짜야하는 것처럼 좋은 태도가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 태도가 할 수 있는 것**

①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생활방식을 변화시켜 줍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시작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지만, 사실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인생의 끝이 좋아지도록 좋은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②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변화시켜 줍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만 잘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대인관계를 망칩니다. 그러나 상대를 배려하고 존경하는 태도는 대인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③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문제가 적었던 것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도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가 적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는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력을 키우고 성장하고 경험해야 하지만, 계속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실력을 쌓고 경험하고 성장하며 바른 태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합니다 ([잠 23:7](https://ref.ly/logosref/Bible.Pr23.7)).

**2. 믿음의 긍정**

어느 대학 신문사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이 누구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1위는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백범의 자서전 〈백범일지〉를 보면, 선생이 어려서 수두를 앓았을 때 그 모친이 죽침으로 고름을 짜냈습니다. 때문에 백범 선생의 얼굴에는 마맛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1) 김구 선생님**

백범은 큰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科擧)시험을 보러 갔다가 그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실력도 없는 부자들이 큰 선비의 글을 돈으로 사는 과거시험 현장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벼슬길을 단념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풍수와 관상을 공부했습니다.

백범은 석 달 동안 두문불출(杜門不出)하고 관상공부를 하면서 먼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자신의 얼굴은 천해 보이는 천격(賤格)인데다가 궁하게 생긴 빈격(貧格), 게다가 흉하게 생긴 흉격(凶格)이었습니다. 자신의 못난 얼굴 때문에 비탄에 빠진 선생은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범은 관상 책에 적힌 ‘얼굴이 좋은 것이 몸이 좋은 것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이 마음이 좋은 것만 못하다’는 글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 결과 백범 선생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좋지 않지만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로 노력하여 인품과 사상과 인생 역정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김구 선생님은 관상학자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백범의 모친은 일찍이 기독교에 귀의하여 권사가 되었고 일상 속에서 찬송을 즐겨 불렀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모친의 신앙적 교훈과 격려가 백범 선생의 인품과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동학과 불교를 거쳐 20대 후반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1902년 부친상을 마친 후에 기독교에 입교하고 애국 구국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서울 상동교회 청년회에서 주최한 을사조약 반대 전국대회에 상동교회 청년회 대표로 참석하여 대한문 앞에서 가두연설을 하였습니다. 27년여 동안 중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교민 거주촌에 교회를 지어 예배당과 교육관으로 사용하면서 후진을 양성했습니다.

무엇보다 김구 선생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제 패망으로 환국해서도 숙소인 경고장에서 새벽마다 김치선 목사님을 초빙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948년 북측 김일성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도 장대제교회를 찾아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소천하기 3년 전인 1946년 부활절에 유언과도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 거짓이 없는 내 양심으로 죽음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였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겠다. …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요 12:24](https://ref.ly/logosref/Bible.Jn12.24))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님은 빼앗긴 들에도 마침내 봄은 온다고 믿으면서 애국 구국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태도로 구국 전선에 앞장서 싸웠던 것입니다.

**2) 긍정적 태도**

마음의 태도를 말할 때에 긍정적인 태도가 좋다고 합니다. 일이 잘 안 되어도 결국 잘될 거야라는 긍정의 태도, 자녀가 말썽을 부려도 ‘기도하니까 언젠가는 잘될 거야.’라는 긍정의 태도,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라는 긍정의 태도, 기도할 때 도무지 응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나 아무 희망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더욱더 바라는 믿음의 긍정, 이런 긍정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화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화를 잘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화법이 중요하므로 이것을 배워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미지-메이킹(image-making)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 희망 온화의 이미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지보다 태도를, 인상보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자력 긍정이 아닙니다. 스스로 수련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것이 자력 긍정입니다. 이는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독하게 노력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마음을 수련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고학(苦學)을 할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여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외지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가난한 교회 목회자로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보내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찾아오실 교통비조차 구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돼.’라며 제 자신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견딜 수 있었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독한 사람이 되고, 독한 사람이 되다가 보니,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긍정의 태도로 살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긍정이 아니라 자력의 긍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정의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독해져서 긍정의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긍정도 있었지만, 스스로 지독해져서 역경을 이기는 자력의 긍정이 더 컸습니다.

제가 말하는 긍정은 자력의 긍정이 아니라 믿음의 긍정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견디는 은혜의 긍정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 18:29](https://ref.ly/logosref/Bible.Ps18.29)).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https://ref.ly/logosref/Bible.Ro8.28)).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https://ref.ly/logosref/Bible.Php4.13)).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역경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긍정!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인생의 참된 성공을 결정합니다.

**3. 생명에 집중**

본문 [잠언 23장 7](https://ref.ly/logosref/Bible.Pr23.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23장 1](https://ref.ly/logosref/Bible.Pr23.1)절은 관원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상황입니다. 요즈음은 풍요로워서 음식을 아끼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잠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관원과 함께 식사할 때 진수성찬이 나왔다고 해도 “목에 칼을 두라”는 것입니다. 관원이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음식을 탐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원이 음식을 잘 차려 놓았어도 그것을 손님이 탐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면 아까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 “마음껏 드십시오.”라고 해도, 주인은 음식에 들어간 돈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6](https://ref.ly/logosref/Bible.Pr23.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실컷 드세요.”라고 하는 손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으면 탐스럽게 마음껏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8](https://ref.ly/logosref/Bible.Pr23.8)절 말씀도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데로 돌아가리라.” 조금 먹은 것도 소화가 되지 않아 토할 것이고, 식탁에서 나눈 아름다운 대화도 입술과 귀로만 하고 들은 것뿐이지, 마음으로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러므로 차려진 진수성찬이나 말의 향연(饗宴)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살피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므로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하고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합니다.

**1) 부정적 태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부족해서 언제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의 목회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역시, 권 목사, 목회 잘하네. 유명 교수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이겠지. 실력이 있으니까 목회도 잘하는 거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유명 교수라고 목회를 잘할까? 성도 수가 50명을 못 넘기는 교수 목회자도 있고, 교회에서 추방되다시피 하는 교수 목회자도 있는데.…’

이 말은 자칫 제가 잘난 체한다는 말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실력이 성공의 정도를 결정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어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른 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실력은 있어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목회에 있어서는 명문대 출신보다는 그런 학력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력이 목회의 성공--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한다는 의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 우리 주변의 목회 현장을 둘러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력이 목회의 고도(성공)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목회의 고도를 결정합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제가 O형이라고 하니, “목사님은 역시 O형이시군요. O형은 성격상 목회를 잘하지요. 저는 A형이라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A형이기 때문에 목회를 못한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목회를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는 태생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그어 놓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두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합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목사님 치고 생명사역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 목사님이 하시는 생명사역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질문해야 할 것 같은데, 그분은 그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짐작하여 그것이 누구나 하는 생명사역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해마다 4월 말이 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구동신교회에서 제가 그동안 해 오던 생명사역을 전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 각지에서, 때로는 일본에서도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려고 오십니다.

그곳에 오신 분들은 이미 무엇인가 배우려고 오셨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목사님들은 ‘지도 목사, 나도 목산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신학 수업을 하고 강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니나 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생명사역은커녕 무엇도 배울 수 없고 어떤 개선과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매월 드리는 지원금 외에 더 드리러 간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교회의 목사도 목사고, 저도 목산데, 권사님 교회의 목사님은 교회에서 대우도 잘 받으실 텐데, 저는 3명 데리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팍팍한 목회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어서 자조 섞인 탄식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이런 태도는 배워서 개선하고 발전하겠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대구동신교회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다녀가신 분들은 거의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작 이런 강의를 들었다면 제 목회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번에 목회가 뭔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목회도 잘 배우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를 할 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시달리다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힘과 희망을 얻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동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혹시 별 것이 있나 와 봤더니 역시 별 것이 없었습니다. 한 수 배우려고 왔는데 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운을 팍 꺾어버리는 말입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태도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다른 분들과 동일한 강의와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목사님 간에는, ‘니도 목사, 나도 목사!’라는 태도가 너무 팽배하게 퍼져 있어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발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목회를 잘한다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분이 유명하며 그분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실제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이라도 제대로 들었을까요?

몇 년 전에 대구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한 분의 사역자가 오셔서 인천에서 청년 사역이 잘 된다는 간증과 함께 강의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한 분이 오셔서 부산도 요즈음 영적인 기류가 엄청 변하고 있다는 간증과 함께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다 듣고 나서 논평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도 되구요. 부산도 되구요. 물론 대구도 대구(되구)요.”

대구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대구는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대구 목회는 살아남기만 해도 대단하다는 말도 떠돕니다.

이런 유머도 떠돕니다. 어떤 광대가 코끼리를 숙련시켜 돈을 많이 벌던 중 이런 말을 했답니다. “누구든지 이 코끼리를 울게 하면 특별상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코끼리를 울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으나 코끼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코끼리에게 뭐라고 말하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과연 코끼리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너, 대구 가서 목회 해라!”고 했답니다.

이것이 대구 목회자들의 의식이고 태도인 것 같았습니다. 대구는 장로님들이 세고, 보수의식이 강해서 변화를 싫어하고, 불교가 강하고,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학생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대구 목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천에도 살아 계시고, 부산에도 살아 계시고, 대구에도 살아 계십니다. 대구 교인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구 교회도 변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안 된다!’ ‘요즈음 개척교회는 안 된다!’ ‘요즈음 성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은 분발하여 열심히 배우고 발전해야 하겠다는 도전으로서는 좋지만,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생각으로서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의식과 태도는 발전을 막는 요소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참된 의미의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2) 스윈돌/ 라빈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세계적인 강해설교자로 유명합니다. 제가 볼 때 스윈돌 목사님은 19세기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도 잘하시고, 유머와 재치도 뛰어나시고, 어휘 구사력이 천재 급입니다. 스윈돌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나 설교나 강의를 들을 때 저는 깜짝 깜짝 놀랍니다.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발전해야 하겠다는 강력한 도전을 느낍니다. 스윈돌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설교가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학생시절에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는 2013년 5월 7일 인터넷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신다”(God Works in Our Weakness)라는 글을 띄웠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성인으로 수백만 명에게 설교했지만, 어릴 때 자라면서 제 자신이 설교자가 되리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말을 더듬는 큰 문제를 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십대 때에는 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리차드 니미(Richard Nieme) 선생님을 만나면서 바뀌었습니다. 니미 선생님은 텍사스 주 휴스톤에 있는 밀비 고등학교의 드라마와 연설 교사였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저를 자기 반에 넣어 주셨습니다. 제 누이 루시가 귀띔을 해 드렸는지는 모릅니다. 누이는 제가 외~~~운 시~~~시들을 한 소절 한 소절 아~~~암송할 때 잘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구절들을 읽는 것은 그런 대로 해냈지만, 암송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구절들을 머리로는 볼 수 있었지만, 혀와 입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니미 선생님께서 제게 접근해 오셨을 때 제가 물러섰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드라마와 연설 선생님께서 제게 대답을 요구하셨을 때, 저는 겨우 ‘저~~~접니까?’라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조지 워싱턴이 여기서 주무셨다〉는 연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인공을 하겠다고 서명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을 했던 그 경험이 고등학교 남은 기간뿐 아니라 저의 남은 생애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을 더듬던 제가, 말을 더듬던 소년이 연설의 왕으로 변화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윈돌이 어릴 때 ‘난 못해! 절대 못해!’라는 태도로 자신의 변화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목회자가 ‘난 목회를 잘 못해. 아무리 해도 안 돼! 개척교회도 안 되고, 기성교회도 안 되고…, 이게 내 운명인가 봐.’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변화시키시고 스윈돌도 변화시키신 하나님, 저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는 태도로 기도하고 노력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앤서니 라빈스(Anthony Robbins)를 아시지요. 어느 날 그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세미나가 열릴 오렌지 카운티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글렌데일 시 상공을 지나갈 때 문득 눈에 익은 대형 빌딩이 보였습니다. 라빈스는 조종사에게 잠시 그 건물 위를 선회하자고 했습니다. 그 건물은 불과 12년 전 라빈스가 청소부로 일했던 바로 그 빌딩이었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라빈스는 출근하는 30분 동안만이라도 1960년형 고물 폭스바겐이 고장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라빈스가 10여 년 만에 헬기로 청소하던 건물 위를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빈스는 마침내 어빈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보니 세미나 장소로 향하는 길이 1마일도 넘게 막혀 있었습니다. 실내경기장에 약 2천 명이 참석하리라고 예상했는데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차량이 1마일 이상 밀려 있었던 것입니다. 라빈스가 실내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때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에워싸였습니다. 10여 년 전 청소부가 어떻게 그토록 놀랍게 변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라빈스는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지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태도입니다.

라빈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안다.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은 우리 내부에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깨워서 탄생시킬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속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면 됩니다.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은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자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는 태도에서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깨우면 돼!’라는 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학업의 앤서니 라빈스, 직장생활에 앤서니 라빈스, 목회에 앤서니 라빈스, 생명사역에 앤서니 라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 예수의 광인(狂人)**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마 9:35](https://ref.ly/logosref/Bible.Mt9.35)). 예수께서는 3년 남짓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요 19:30](https://ref.ly/logosref/Bible.Jn19.30)).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류구원의 사역을 3년여 만에 이루라는 사명을 맡기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문맹퇴치 교육? 질병 치료? 악령 추방? 압제에서 해방?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게 하는 사역?

이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거기에 집중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집중하여 일하신 결과로 교육과 치유와 영적인 자유와 해방과 부요한 삶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그 뿌리가 되는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구원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생명사역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순간 믿음으로 예수와 접속하여 예수의 생명을 섭취하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의 태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고 늘어질 것으로 삼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절대 겸손, 절대 복종의 마음([빌 2:5–11](https://ref.ly/logosref/Bible.Php2.5-11))이 그것입니다.

절대 복종의 마음은 이를 갈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녹아서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마음,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께 미친 마음입니다. 두 아들을 순교자로 바친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란 글을 남겼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예수께 미치면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인간다운 인간,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 1:3](https://ref.ly/logosref/Bible.Is1.3)). 이 말씀처럼 예수께 미치면 임자를 알아보는 소나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 나귀만도 못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1–12](https://ref.ly/logosref/Bible.Jn1.11-12)). 예수께 미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 미치면 비정상이 되지만 예수께 미치면 정상이 됩니다. 예수께 미치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됩니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도 정상이 됩니다. 예수께 미치면 인생 전체가 정상이 됩니다. 예수께 미치면 성령의 열매, 인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태도입니까, 믿음의 긍정적 태도입니까? 여러분은 생명사역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 ‘우리 목사님, 또 생명사역 얘기 하시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밑천이 떨어지셨나? 재탕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생명사역이 사는 길이야. 생명사역이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야. 생명사역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야. 생명사역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야.’라고 말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태도가 인생의 참된 성공을 결정합니다.

생명사역: 제2강

생명사역 미션

[**마태복음 9:35–38**](https://ref.ly/logosref/Bible.Mt9.35-38)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생명사역은 천국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러한 생명사역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생명사역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생명사역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션(사명)과 비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윌 만치니(Will Mancini)의 〈독특한 교회〉(*Church Unique*)에 나오는 아래의 도표를 보면 혼돈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명함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생명사역을 육하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누 가:** 위의 도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생명사역을 하는가?

**무엇을:** 생명사역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언 제:** 생명사역은 언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위 도표의 ‘측정’입니다.

**어디로:** 생명사역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비전’은 산 정상입니다.

**왜:** 생명사역은 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위 도표의 ‘동기(가치)’입니다.

**어떻게:** 제자훈련과 생각의 틀(신학) 훈련입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사역이란 ‘미션(사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구동신교회 부임하여 생명사역을 해 온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셨는가 하는 것은 ‘언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가?’의 ‘언제?’ 부분입니다.

생명사역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드리다 보면 자칫 개인의 자랑이 될 수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생명사역의 열매는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간증입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현장목회의 총책임자로 일해 보지 못했던 제가 목회일선에 뛰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의 멘토 가이드 교사 지도자가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목회의 열매까지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생명사역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열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생명사역의 열매를 말씀드린 후, 생명사역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사역의 미션(사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사역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대구동신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1. 생명사역 미션의 열매**

생명사역을 하면 우선 내가 삽니다. 생명사역을 하는 나 자신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생명사역을 하면 예수의 생명을 체험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생명사역을 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생명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예수의 생명을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1) 가족의 변화**

생명사역은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각종 병자와 약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 따라 생명사역을 하면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갑니다.

지난 17년 동안 생명사역을 전개하면서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도 기쁨이 있었지만, 대구동신교회에서 생명사역을 하면서 기쁨 정도가 아니라 ‘환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난 중의 환희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생명사역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생명의 수액을 빨아 먹는 것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속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과 능력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환희’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지를 준비할 때와 전할 때와 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상한 감동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생명사역 메시지를 준비할 때 처음에는 말씀이 열리지 않아 고심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열리는’ 체험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7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말씀이 불이 되고 불방망이가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설교자인 제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29](https://ref.ly/logosref/Bible.Je23.29)).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매번 말씀의 불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 속에 지르시는 불을 받고 감격합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의 불을 설교 시간에 전할 때마다 저는 늘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것이 생명사역의 보람이요 행복이요 환희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고학을 하면서 저의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살았습니다. 학업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를 꽉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독하고 매정해졌습니다. 제가 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을 저를 따스한 사람으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속으로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독해졌습니다.

그러하던 제가 결혼하면서 부드러워졌고 교수생활을 하면서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생명사역 목회를 하면서 더욱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목회생활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회생활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유를 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목회현장은 어차피 고난의 현장입니다. 아무리 잘되어도 목회는 인간의 죄성(罪性)과 세상과 사탄과 마주쳐 벌이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때문에 목회현장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 목회에서 제게 환희와 여유를 주셨습니다. 고난 중 환희, 고난 중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는 탓도 있겠지만, 이런 환희와 여유가 저를 ‘인자한’ 모습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두고 “목사님의 인자하신 표정”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내가 인자해? 나는 생긴 모습이 결코 인자하지 않은데.’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든 인자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된 것은 생명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명사역을 하면서 목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년 전 목회를 시작할 때에 고 옥한흠 목사님께서 “권 교수님, 목회가 뭔지 아세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옥 목사님의 질문을 받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옥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목회를 체질적으로 잘 압니다.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하실 때 시골의 전 재산을 팔아 예배당을 지으셨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히시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목회의 쓰디쓴 맛도 압니다. 그리고 제 형제들이 다 목사입니다. 저도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에서 인기 있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제게 목회가 뭔지 아느냐는 질문을 하십니까?’

제가 옥 목사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옥 목사님의 그 질문의 의미가 “권 교수님, 목회를 체험적으로 아세요?”라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안다고 했던 목회는 이른바 ‘이론 목회’였습니다. 그것은 고작 바둑 두는 것을 지켜보면서 바둑을 안다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안다고 했던 것은 ‘간접 목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체험하게 된 것은 ‘체험 목회’ ‘직접 목회’입니다. 제가 체험한 목회는 ‘쓴 맛 단 맛’을 다 보는 ‘현장 목회’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회 현장의 실제 경험을 통하여 목회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회가 잘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명사역훈련원을 개원하고 전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생명사역 목회의 열매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목회가 됩디다.” 하며 생명사역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사역을 하면서 저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저의 아내도 변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수로 지내다가 대구동신교회로 내려오고자 할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어이 가겠다면 혼자 가세요. 목회는 안 하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목회를 한다고요? 목회가 얼마나 힘겨운 건데.… 아이들이 한창 공부하고 있는데 대구로 내려간다고요? 다른 집 아이들은 미국으로 간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대구로 내려간다고요? 혼자 가세요.”

아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방 들고 심방 가는 목사님 뒤로 몇몇 여성들이 쫄로리(‘나란히’의 경상도 북부 사투리) 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제 아내의 목회자상(像)이었습니다. 아내가 생각하기에 목회자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교인들에게 매사 간섭을 받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겠다고 했을 때 아내가 그렇게 반대한 것도 자녀 교육문제와 함께 자유를 박탈당하고 늘 매이고 조여서 사는 모습이 싫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랬던 저의 아내가 이제는 생명사역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부임 초기에 제자훈련을 하고 싶은데 여성 지도자가 없다고 했더니 옥한흠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제자훈련 세미나에 보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서 첫 날은 피곤해 하더니 마지막 날에는, “여보, 저도 사역을 할래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도 채 안 되는 세미나 기간에 아내가 그토록 변했다는 사실에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아내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와서 사랑방 순장으로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교사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자신도 변하고 순원들도 변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순원이 놀랍게 변하는 모습을 아내가 보았습니다. 그 순원은 마음이 컬컬해서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두리번거리다가 동신교회 십자가를 보고 들어와서 생애 첫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원은 로마서 공부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자녀들과 동생들을 전도했습니다. 아내는 그 순원만이 아니라 다른 순원들이 로마서 공부를 통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생명사역의 재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전도폭발훈련 5단계 교사로 일하면서 교인들에게 생명사역 훈련을 받도록 권면합니다. 아내는 어떤 의미에서 생명사역 훈련을 받도록 동원하는 동기유발 사역자입니다. 저의 아내의 권면을 받고 훈련을 받으신 어떤 권사님은 사랑방 순장으로 봉사하시면서 놀라운 변화의 파문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부목사님 사모님들도 아내의 권면으로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모님은 지금 담임으로 목회하는 남편에게 그때 받은 훈련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저의 아내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교역자 사모 독서모임 리더로도 일합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좋은 책을 정해서 읽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아내와 부교역자 사모님들이 큰 유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목사님들이 가끔 자신의 아내가 독서모임에서 큰 유익을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여성 상담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상담하기도 하고 전화로 상담하기도 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후에 여성과 상담할 때 아내가 동석하여 상담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는 아내가 상담할 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주 크게 놀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내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 이후 내내 ‘상호 제자훈련’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깨달은 진리를 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목회자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즈는 매일 10여 시간 공부하여 터득한 진리를 자신의 아내에게 매일 나눠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말을 타고 산책을 했는데, 말 타고 산책하는 1시간 동안 에드워즈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의 핵심을 자신의 아내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부한 것을 아내에게 늘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상담을 하는 셈입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서 유익을 본다는 말을 교인들로부터 들으면서 아내도 보람을 느끼지만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아내는 제게 있어서 정말 유익한 생명사역 내조자입니다.

미국 유학시절에 아내는 봉제공장에서 가죽제품을 만들 때 굵은 바늘이 손톱 위로 지나간 적도 있었지만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늘 배를 아파하며 혈색은 중환자처럼 누렇고 해골처럼 바짝 말라 있을 때에도 아내는 불평 한 마디 없이 봉제공장이나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저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제가 생명사역 목회를 할 때도 아내는 일체 불평을 하거나 바가지를 긁지 않습니다. 회의를 하고 힘이 들어 목회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저를 아내는 지혜롭게 붙잡아 주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젠 목회 그만둡시다. 아무래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당장 그만 두세요. 목회는 접고 서울로 다시 올라갑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보, 목회는 힘들다고 접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는 우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평생 목회하셨어요.”라고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흔들리는 저 자신을 붙잡아 세우곤 했습니다.

생명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의 아내뿐 아니라 저의 두 딸도 변했습니다. 저의 두 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 인격적으로 만나 복음의 확신과 감격이 있습니다. 두 딸이 다 친구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잘 어울려 지내면서 친구들에게 예수 생명의 영향을 전합니다.

첫째 딸은 미국 한인 교회 영어예배부 ‘경배와 찬양’ 리더를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팀원들에게 상담도 해 주곤 했습니다. 팀원들이 저의 딸을 좋아할 뿐 아니라, 저의 딸로 인하여 신앙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서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도 제 딸의 신앙과 품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영어예배부 목사님도 저의 딸이 전도사처럼 일을 해 주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지금은 남편을 따라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 딸은 그 교회의 친구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친구들 사이에 ‘비타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 딸은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어떤 친구가 무슨 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 딸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즉시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제 딸이 친구들과 상담한 이야기를 제게 할 때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소개했던 ‘세 그루 나무’ 원리에 따라 제 딸이 상담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과 같은 현실에 대해서 ‘가시나무’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열매 나무’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딸은 상담할 때 우선 그의 상황 속으로 최대한 들어가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식의 반응이 잘못된 것임을 사랑으로 지적합니다. 이어서 그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 결과 그가 ‘열매 나무’로 변화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세 그루 나무’(가시나무, 십자가, 유실수) 상담입니다. 제 딸이 제가 설교한 대로 이런 상담을 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저와 아내가 교인들과 함께 생명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 딸들은 멀리서도 저의 설교를 듣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교훈을 받고--때로는 거절하다가 후에 그것을 읽는 방식으로--변화되었습니다. 두 딸이 변화되어 나름대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생명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내와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6년 연말 목회자 부부 동반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우리가 대구동신교회에서 17년 동안 목회를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질리지 않으세요? 질릴 만도 한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사역의 보람과 기쁨이 큰데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희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질문하신 분을 좌절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역의 환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부부는 목회의 이런저런 고난을 가끔 겪지만, 참으로 행복합니다.

**2) 교회의 변화**

저는 대구동신교회에서 40여 명의 부교역자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은 저와 함께 생명사역을 하면서 변화와 보람과 행복을 체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부임 초기에는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사역경쟁을 시켰습니다. 일 년 동안 충성하도록 독려한 다음 연말에 사역을 잘한 몇 명의 부교역자를 뽑아 격려했습니다. 다른 부교역자들이 자극을 받아 더 잘하게 하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생명사역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한데, 인센티브제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부교역자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교역자들은 주일 설교와 예배, 각자 맡은 사역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아 생명사역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하니, 사역 자체가 효과도 있고 보람도 있다고 합니다.

부교역자들은 아버지 같기도 하고 교수나 선배, 큰형 같기도 한 저를 멘토로 삼고 설교 코칭과 목회 코칭, 인성 코칭과 가정생활 코칭까지 받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설교는 전형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설교를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코칭을 받으니 좋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목사님이 담임목회지로 나갈 때, 그 교회에 지원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 중 설교할 기회를 얻어 설교를 하면 설교 코칭을 받은 덕분에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정도 목회와 설교 강의를 통해 부교역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목회 전반에 걸친 실제적인 강의와 함께 전 주 설교의 본문 선택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하나님의 은혜, 설교의 구조와 식상해지기 쉬운 설교를 교인들에게 참신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방법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구동신교회 부교역자들은 이런 강의를 통해 훈련받아서 목회 전반을 잘 알게 된다는 고백을 합니다.

생명사역을 하면서 장로님들도 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임 초기에는 당회도 뻑뻑한 면이 있었고 당회를 앞두고 고민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당회 때 큰 소리도 가끔 나오고 윽박지르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당회 어떻게 합니까?”라면서 탁자를 친 적도 있었고, “저런 경우 제재하지 않고 뭘 합니까?” 하며 고함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한 당회’라는 고백을 저와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장로님들 사이에 상호 신뢰와 존경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당회가 아주 은혜롭게 진행됩니다.

대구동신교회의 경우 담임목사님의 판공비가 저의 손을 거치지 않고 교회에서 바로 필요한 곳으로 지출됩니다. 제가 생명사역훈련원을 통해서 출판하는 책들의 저자사례는 일절 받지 않고 모두 전국 목회자 훈련에 투입됩니다.

생명사역 컨퍼런스 강사료도 일절 받지 않고 모두 전국 목회자 훈련 비용에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비자금이 일체 조성되지 않고 담임목사의 판공비조차 공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재정 관련 비리나 의심이 일절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신뢰하는 데 이런 재정 관리가 일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당회가 끝나고 나면 당회원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당회 끝나고 박수치는 당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라며 당회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당회원 수련회를 갈 때와 올 때에 버스 안에서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장로님들이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회원들이 빙 둘러앉아서 저에 대해서 한두 마디씩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당회원들이 예외 없이 각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직하고 투명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잘못하실 경우 바로 사과하십니다. 교회 전체가 은혜로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과 행위가 일치합니다.”

생명사역은 동신교회가 있는 한 계속되는 것이라 매해 ‘표어’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사역 몇 년 차라는 것만 표기할 뿐입니다.

매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목회방향을 잡고 예산을 짤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결정하고 당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됩니다.

장로님들이 제가 예산 방향을 잡도록 해 주시고, 인사 문제도 거의 위임하다시피 해 주십니다. 물론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제가 부교역자들과 신임 교역자 인터뷰를 해서 결정하면 장로님들이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니다.

생명사역 컨퍼런스 때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참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짐을 들고 본당으로 올라오는데 어느 교인이 바로 짐을 받아 들고 옮겨주셔서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선교사님을 보고 “저는 동신교회 교인인데 행복합니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것이 생명사역 훈련목회의 결과로구나!’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생명사역을 하면서 저는 부교역자들의 변화와 장로님들의 변화만이 아니라 교인들의 변화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두 주 전쯤에도 3부 예배가 끝나고 식당 방에서 저의 아내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도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불쑥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일에 어떤 여성도가 저의 아내를 통해서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은 예전에 다른 교회에 다녔지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동신교회에 와서 정말 많이 변했다는 편지였습니다. 설교가 오묘하면서도 명쾌해서 이해하기가 쉽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서 아주 큰 은혜를 받는다는 편지였습니다.

몇 주 전에는 아내와 이혼한 후 동신교회에 처음 왔다고 하는 분이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으니 이혼한 아내가 불쌍한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밤에 대리운전을 하는 분인데, 그는 특별새벽기도회에 딸들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언니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후에 동생을 보고 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복을 받는 비결을 이제 알았다. 저런 설교를 들으니 복을 받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니 나도 너무 좋다. 다음 주부터 진주에서 동신교회까지 와서 설교를 들어야 하겠다.”

우리 교회 교인들과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우리도 목격하고 다른 사람들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변하니까 자녀들이 변해서 가족 전체가 복을 받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어느 의료선교회 강사로 갔을 때 임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임원 한 분이 “동신교회 교인들은 ‘나는 행복하다.’는 배지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신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동신교회에 지금 훈련받은 평신도 생명사역자가 1,700명 정도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생명사역에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두 개의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어떤 분은 지금 동신교회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의 헌신이 자신이 다녔던 서울의 두 대형교회 교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이라고 했습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링크-업’(Link-Up, 예수님과 접속)을 했습니다. 매일 6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약 1,000명씩 참석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역자들은 한결같이 “이것이 훈련목회의 결과이군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목회자들은 컨퍼런스를 위해 주차로, 식당 봉사로, 안내로, 간식 봉사로, 의료로 섬기는 평신도들의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생명사역 훈련목회의 결과로군요!”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대구동신교회 청년부는 지난 2년여 동안에 2배 성장했습니다. 500명 정도 출석하던 청년부가 지금은 약 1,200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생명사역 훈련목회를 하다 보니 청년들이 최근에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대구동신교회 청년부가 왜 부흥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으면 청년들은 제일 먼저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볼 때 대구동신교회 청년부가 부흥하는 데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 새벽기도회와 특별기도회가 뜨겁습니다.

✽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 목사 5명, 여전도사 2명, 도합 7명의 청년부 전임 사역자들 간에 최상의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 380명의 청년 리더들이 잘 훈련되어 철저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 청년부 안에서 매해 30–40커플 정도가 결혼을 합니다.

✽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사역자들이 모두 만사를 제쳐 놓고 전화심방을 합니다.

✽ 청년부 자체 재정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합니다. 청년들이 헌금한 그 재정의 대부분을 청년부 자체가 책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합니다.

거의 매주 전국 청년부에서 대구동신교회 청년부를 탐방하러 오고 있습니다. “요즈음 전국 대부분의 교회 청년부가 정체되거나 쇠퇴하는데 대구동신교회 청년부가 부흥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궁금증을 품고 탐방하고 있습니다.

대구동신교회 청년부 부흥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17년 동안 생명사역을 한 결과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흘러나가는 현상이 청년부 부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앞으로 과제**

생명사역을 전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위와 같은 변화의 열매를 주셨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1,700명의 성도들이 저와 함께 훈련된 생명사역자로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주일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일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생명사역을 최우선의 미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아직 생명사역 훈련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성도들이 우선 훈련을 받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적부 자체가 학교의 학적부처럼 새가족 양육, 제자양육원 양육,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훈련, 성조훈련(성경으로 따라가는 조직신학 훈련), 바이블 투어 훈련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야 할 적령기가 되면 유치원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소그룹 교제도 역시 남은 과제입니다. 400명 내외의 대교구에 한 교역자를 두어 성도들을 돌보게 했는데,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대교구와 사랑방 사이에 100명 내외의 중그룹을 두어 장로나 안수집사가 중그룹장을 맡게 하여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면 작은 교회 같아서 교인들의 이름을 다 알면서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그룹 밑에 소그룹으로 사랑방을 10개 내외로 두어 중그룹장이 사랑방 순장들과 협력하여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중/소그룹제를 운영한지 2년째가 되었는데 그 이전보다 교인들 간의 교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사랑방 성경공부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랑방도 상당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경조사만이 아니라 영육간의 건강, 교육과 훈련 정도, 불신 가족 전도 등을 다 챙겨야 하는 생명사역 작업이 지금보다 더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사랑방, 중그룹, 대그룹 단위로 체험되고 흘러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대구동신교회의 현재 상태는 부흥(revival) 수준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에 번진 부흥은 성령의 동시다발적인 비상충만(토하는 회개로 나타남)이었습니다. 대구동신교회는 은혜의 도가니 같은 예배와 철저한 교육 훈련과 ‘문제가 터지면 바로 달려가서 처리해 주는’ 돌봄과 상당수 성도들이 기쁨으로 각 분야에서 섬기는 봉사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것을 볼 때 눈시울이 뜨거워질 지경이지만, 그래도 아직 부흥의 수준은 아닙니다.

저는 평생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같은 개혁이 있으면 부흥이 있고, 1907년 평양 부흥 같은 부흥이 있으면 개혁이 있습니다. 부흥과 개혁, 개혁과 부흥, 이것이 평생토록 저의 기도제목입니다.

부흥은 물론 성령의 대심방(great visitation)이라는 점에서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회개와 개혁으로 잘 준비되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심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행차하시도록 그 길을 닦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 40:3](https://ref.ly/logosref/Bible.Is40.3)). 우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2. 생명사역 미션의 본질**

저는 지난 17년 동안 대구동신교회에서 생명사역 훈련목회를 진행시켜 오면서 이상과 같은 변화를 목격하는 환희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사역 훈련목회의 결과를 기록하자면 책 한 권을 써야 할 정도로 많지만, 위와 같이 요약했습니다.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지만, 그래도 생명사역 훈련목회의 변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난 중 환희의 목회자로 바꾸셨고, 부교역자와 당회원들을 행복한 생명사역자들로 바꾸셨으며, 상당수 교인들도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도대체 생명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하게 하셨을까요?

**1) 천국의 생명사역**

생명사역의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9장 35–38](https://ref.ly/logosref/Bible.Mt9.35-38)절입니다. 그 중 핵심은 [마태복음 9장 35](https://ref.ly/logosref/Bible.Mt9.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교회와 연합집회에 가서 설교와 강의도 했지만, 정작 목회를 하려고 하니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14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 기획실장이라는 보직을 맡아서 3년간 섬겼습니다. 기획실장은 총장을 보좌하면서 학교 살림을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총신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존 나이스비트, 앨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등의 미래학에 관련된 책을 수십 권 읽었습니다.

이들을 읽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21세기는 지식을 갖추고 실천하는 지식인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결론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목회하면서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5년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대구동신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구동신교회에 오기 전,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한국 교회의 정체와 쇠퇴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100여 쪽의 논문을 통해 한국교회를 신학적 목회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작업을 하게 하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회가 무엇이며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때에 고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 떠오르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옥한흠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을 접목하여 선교단체 차원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제자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 깨워서 ‘작은 목회자’로 목회 동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옥한흠 목사님의 목회의 근거구절이 무엇인가 살펴보다가 그것이 [마태복음 9장 35](https://ref.ly/logosref/Bible.Mt9.35)절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관찰하여 그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https://ref.ly/logosref/Bible.Mt4.23)절에서도 요약했는데, 그 내용은 [마태복음 9장 35](https://ref.ly/logosref/Bible.Mt9.35)절과 같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요약을 읽으면서 ‘이젠 됐다!’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남짓 만에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구원의 ‘미션’을 완성하시고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9장 35](https://ref.ly/logosref/Bible.Mt9.35)절에서 찾았으니, 저는 보물 중의 보물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각종 병자와 약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옥한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따라 사랑의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로 규정하고 제자훈련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옥한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대로 제자훈련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슬로건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복음의 일환으로 고치셨는데, 그것은 논리적인 순서로 배치하여 기억하기 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천국복음을 전하여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키우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병들거나 약해지면 친히 고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천국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천국복음대로 고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접속되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생명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후, 제가 하는 목회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라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천국 왕’으로 오셔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통하여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목회의 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을 확장하는 생명사역을 목회의 ‘미션’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옥한흠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사랑의교회라는 목회현장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옥한흠 목사님의 목회 모델을 따라서 생명사역 목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옥한흠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를 제자훈련 목회라고 하시고 ‘생명사역’이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제자훈련 목회가 결국 생명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은 ‘전략’으로 보고 ‘생명사역’은 ‘미션’으로 보았습니다. 생명사역의 전략은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생명사역 ‘미션’만 설명하겠습니다.

**2) 예수의 생명체험**

제가 생명사역 서론으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생명사역을 해야 하겠습니까?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생명사역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9장 36](https://ref.ly/logosref/Bible.Mt9.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스플랑크나’의 동사형입니다. ‘스플랑크나’는 위장 간장 심장 등 내장의 총칭(總稱)입니다. 헬라어로는 내장 전체를 뜻하는 ‘스플랑크나’는 가장 큰 긍휼 자비 연민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스플랑크나’가 달려갔습니다. 무리를 향하여 심장이 달려갔습니다. 무리를 향하여 가슴이 달려갔습니다.

생명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없이 생명사역을 하면 그것은 기계적인 기술일 뿐입니다. 생명사역 제자훈련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생명사역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요즈음 ‘제자훈련도 잘 안 된다.’는 말이 떠도는 것이 생명사역 제자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명사역 제자훈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을 훈련시켜 동원하는 하나의 기술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제자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상실한 채 머리로만 제자훈련을 하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수 시절 인도네시아 선교사 집회 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자훈련 받은 어느 큰 교회 집사님의 음식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식사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만은 못하십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중국 음식으로 말하면 풀코스와 같습니다. 그러나 권 목사님의 설교는 짬뽕이나 자장면처럼 중국음식 한 가지와 같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말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훈련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제자훈련을 받으면 다른 교회의 목사님과 교인들은 아예 눈 아래로 보이는 것일까요?

그 집사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받은 분의 거만을 다른 곳에서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성경공부 시범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바로 지적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그래도 그곳은 제가 담임목사로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목회신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그곳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이라는 말에도 몹시 분노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한다는 어느 큰 교회의 교인이 같은 동에 살고 있는데 목사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자 다른 목사님들도 저마다 제자훈련을 한다는 큰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사역 제자훈련을 하고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스플랑크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 연민 공감 사모 사랑의 마음을 놓치고 말씀 암송 기술, 말씀 적용 기술, Q.T. 기술, 소그룹 지도 기술, 이런 ‘기술 훈련’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사역 제자훈련은 ‘기술’ 훈련이 아니라 ‘마음’ 훈련입니다. 마음은 인생의 원천입니다. 마음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잠 4:23](https://ref.ly/logosref/Bible.Pr4.23)). 마음 훈련이 없이 기술 훈련만 받으면 인간 됨됨이는 무시하고 처세를 잘 하는 처세술처럼, 제자훈련이 인간 됨됨이는 무시하고 교회라는 기업을 잘되게 하는 교회술(術), 목회술(術) 훈련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는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머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빌 2:5–11](https://ref.ly/logosref/Bible.Php2.5-1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태도로 생명사역 제자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를 향해 가슴이 달려가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다’는 단어는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고생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진하다’는 단어는 그렇게 고생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어쩔 수 없어 쩔쩔 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생하고 기진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harassed and helpless’입니다.

생명사역을 할 때 염소처럼 떠받는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교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생명사역은 실패합니다. 그런 교인까지 품고 위하여 축복기도 하면서 훈련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살이에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가정에서나 학교나 교회나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답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괴롭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마귀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면서([엡 4:15](https://ref.ly/logosref/Bible.Eph4.15))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다([갈 2:20](https://ref.ly/logosref/Bible.Ga2.20)).

생명사역은 한 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생명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별말을 다 들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은 내가 사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죽는 사역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체험을 합니다. 이상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고([마 16:24–25](https://ref.ly/logosref/Bible.Mt16.24-25)),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고후 4:10–11](https://ref.ly/logosref/Bible.2Co4.10-11)).

생명사역은 감정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긍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은 혈기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은 나의 자의적 감정 통제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5장](https://ref.ly/logosref/Bible.Jn15)을 보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수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과 자양분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생명사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는 생명사역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7](https://ref.ly/logosref/Bible.Jn15.7)절, [8](https://ref.ly/logosref/Bible.Jn15.8)절, [11](https://ref.ly/logosref/Bible.Jn15.11)절에 하신 말씀이 생명사역자의 태도를 가장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많은 열매도 맺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생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사역은 환희의 사역입니다.

**3) 생명의 추수사역**

생명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생명사역자는 사람들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생명추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38](https://ref.ly/logosref/Bible.Mt9.37-3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을 추수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문제만 보지 말고 동시에 문제해결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목자만 연결시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요 10:10–12](https://ref.ly/logosref/Bible.Jn10.10-12)).

도둑은 양들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킵니다.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흩어버립니다. 삯꾼 목자는 이리를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주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으며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롬 4:25](https://ref.ly/logosref/Bible.Ro4.25)).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만 되면 망가진 인간도 고침을 받습니다. 생명사역은 목자 없는 양들을 선한 목자에게 연결시키는 사역입니다.

문제를 볼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사는데.’라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생명추수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편 다섯과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창녀를 생명추수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창녀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창녀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창녀를 추수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요 4:35](https://ref.ly/logosref/Bible.Jn4.35)).

생명사역자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고생하고 기진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추수밭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생명추수 밭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4) 5가지 생명사역**

우리가 생명추수를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생명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나누는 생명사역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사역으로 전개됩니다.

텍스트, 폰트, 원, 그래픽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동일문화권에서는 전도, 타문화권에서는 선교) 일단 선교나 전도를 통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서 생명의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옵니다.

선교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기도, 설교, 헌금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영혼이 살고 생활이 삽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바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다른 지체들입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심장 폐 간장 위장 등이 서로 연결하여 생명을 나누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전도, 예배, 교제를 하면서 동시에 교육과 훈련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나면 양육을 받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고, 교생실습이나 현장실습 등을 통해 훈련을 받고, 그 후에 각기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누구나 양육 교육 훈련을 받고 제 나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양육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하여 교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닮아 가도록 합니다.

양육 교육 훈련을 받으면 각 분야에서 봉사와 사역을 합니다. 선교/전도, 예배, 교제, 봉사/사역 분야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교회 밖에서도 섬깁니다. 훈련된 평신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작업을 합니다.

출석하는 교인이 600여 명 정도가 되는 어느 교회의 목회자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는 식당에서 봉사할 사람도 없고, 교사로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동신교회에는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훈련받은 대로 교인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봉사해야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5대 사역을 동그라미로 보면 선교/전도를 통해서 일단 생명의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생명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아 교회 안팎에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또 다시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봉사/사역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재생산입니다.

생명사역은 공동체와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우스 도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명사역 하우스 도표**

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화이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성경(Bible)을 강해해서(Exposition) 성령(Spirit)으로 변화(Transformation)시키는 BEST가 생명사역의 바탕 정신입니다. 생명사역은 성경과 성령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성경의 빛과 성령의 열을 같이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BEST 정신으로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공동체 편으로는 예배와 봉사/사역을 하고, 소그룹 편에서는 교육/훈련과 교제를 합니다. 공동체와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처럼 생명을 공급받고 흩어져서 사명으로 생명을 나눕니다. 이것이 공동체로 가정처럼 생명을 공급받아 사명으로 생명을 나누는 공가사(共家使), 소그룹으로 가정처럼 생명을 공급받고 사명으로 생명을 나누는 소가사(小家使) 사역입니다.

20세기 말에, 미국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10대 사역자들이 21세기는 컴퓨터로 말하면 작동중지(System Failure)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영혼이 작동중지, 가정이 작동중지, 교육이 작동중지, 교회가 작동중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요즈음 모든 것이 작동중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령, 결혼을 안 하겠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치솟는 자녀양육비와 주택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안 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생명의 대가 끊어지고, 가정 학교 직장 교회 국가 등의 공동체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작동중지, 가정의 작동중지, 학교 교회 회사 국가의 작동중지 현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생활의 각 분야가 작동중지 된다고 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천국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열심히 계속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생명사역을 계속할 때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삽니다. 우리는 생명사역으로 작동중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 추수’(Great Harvest)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각 분야가 작동중지 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나누는 생명사역에 뛰어들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사역: 제3강

제자훈련

[**마가복음 3:13–15**](https://ref.ly/logosref/Bible.Mk3.13-15)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지난 주일에는 저와 대구동신교회가 지난 17년 동안 체험했던 생명사역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사역의 열매는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와 딸들이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어서 생명사역의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사역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플랑크나’(내장, 심장)로 생명 추수를 하는 사역입니다.

지난 주 설교 후에 이렇게 문의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사랑방에 가고 싶은데, 제가 속한 사랑방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 동신교회에 다니는 내 친구들과 친지들이 다 변했더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생명사역의 열매와 본질은 아래 도표로 보면 ‘측정’과 ‘미션’입니다.

**✽ 비전의 틀**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명함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생명사역이 ‘언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나누는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생명사역 즉, 생명사역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사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생명사역의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훈련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훈련을 시키셨는데, 왜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으며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1. 왜 제자훈련인가?**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14년 동안 봉직할 때 제자훈련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훈련에 대하여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제자훈련 목회에 뛰어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이 정말 좋은 것인지 성경을 근거로 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1) 나의 고민 해소**

지난 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훈련을 받았다는 분에게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저는 거의 모욕을 당했습니다. 또 목회신학전문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목회자 학생들이 제자훈련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들 중, 제자훈련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키면 교인들의 머리만 커져서 목회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도 떠돌았습니다. 제자훈련을 시키면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에도 금이 가고 똑똑해진 평신도를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훈련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자훈련을 받았다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만할까?’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훈련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12명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훈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정말 10명 내외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훈련을 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보았을 때,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10명 내외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2–3년 제자훈련을 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https://ref.ly/logosref/Bible.1Pe5)에서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 베드로가 장로 등 교회 직분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자훈련을 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제자)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볼 때 바울은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0명 내외의 제자들을 뽑아서 2–3년 제자훈련을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제자훈련보다는 ‘신자훈련’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등은 바울의 목회서신입니다. 이들을 보면,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로 만들고, 신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믿음과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훈련을 시켰습니다([골 1:28–29](https://ref.ly/logosref/Bible.Col1.28-29)). 바울은 제자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신자훈련을 한 것입니다.

흔히 [디모데후서 2장 2](https://ref.ly/logosref/Bible.2Ti2.2)절은 제자훈련의 근거 구절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이 10명 내외의 소그룹의 사람들입니까? “부탁하라” “가르치라”는 것이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하라는 뜻입니까? 이 구절이, 디모데가 제자들을 훈련시키면 또 훈련된 제자들이 각기 다른 소그룹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승법번식의 근거구절입니까?

바울은 그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듯 설교나 교육을 통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10명 내외의 소그룹을 만들어 어느 기간 훈련하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바울이 소그룹 제자훈련을 하라고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 [디모데후서 2장 2](https://ref.ly/logosref/Bible.2Ti2.2)절이 소그룹 제자훈련의 근거라면 바울 자신이 그렇게 행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는 성경의 근거만 확실하다면 제자훈련 목회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전통적인 목회를 하는 아버님과 형제들(저를 포함하여 5형제가 목회자나 신학교수)의 목회 분위기에 친숙했기 때문에 제자훈련이라는 ‘새로운’ 목회방식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듯 목회자로서 설교나 교육을 하라면 하겠는데, 소그룹을 모아 놓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훈련하는 일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다가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2) 하나님의 훈련**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옥한흠 목사님께서 대구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의교회 부목사님이 대구 어떤 교회에서 위임을 받았을 때 설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옥 목사님은 그때 저를 따로 부르셔서 “권 목사님, 제자훈련 하세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확신이 서면 바로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제가 대구동신교회에 부임한 이후 매주 저의 설교를 테이프로 들으시고 계셨다는 말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왜 제 설교를 들으실까 하는 것도 궁금했지만, 왜 제게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는 옥 목사님 질문을 받은 후, 제자훈련에 대하여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훈련은 100% 성경적이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훈련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정보만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셨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을 다 훈련시키셨어.”

성경의 인물 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령 요셉은 십대 소년이었을 때, 큰 인물이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창 37](https://ref.ly/logosref/Bible.Ge37)). 그러나 그가 바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먼저 국무총리감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지만 그 아내의 청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왕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복직한 신하가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2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진 훈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시편 105](https://ref.ly/logosref/Bible.Ps105)편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여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시 105:17–22](https://ref.ly/logosref/Bible.Ps105.17-22)).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인물이 되기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말씀 정보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뭇지게를 지던 시골 소년이 신학교수와 목회자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통의 은총〉이라는 저의 책에 훈련받은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학생활을 할 때도 무정하고 무자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십이지장 궤양으로 공복 때마다 배가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아팠으며 역류성 위염으로 약 7년의 유학생활 동안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토할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바비큐 파티에서 불판 위에 지글거리며 굽히는 소고기를 보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것을 드시면서 좋아하셨지만, 저는 바비큐 파티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씹을 것이 별로 없는 밥도 잘 못 먹는데 하물며 한참을 씹어야 하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잘 구웠다고 할지라도 소의 살점인데 그것을 씹어 먹는다는 것이 제게는 고역이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아무리 씹어도 목구멍으로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교인들 앞에서 토할 수도 없었으며 관목 숲으로 슬그머니 사라져서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의 이상한 행동이 흥겨운 판을 깰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인간이라면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 먹는 것까지 고역이 되게 하십니까? 남들에게는 큰 기쁨이 제게는 왜 큰 고역입니까? 저를 연단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겠습니까? 꿈에서 그리던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하시고는 밥도 못 먹게 하시고, 소고기도 못 씹게 하시고, 공부할 때마다 배가 쑤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배가 쑤셔 울게 하시고.…”

후에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지독한 훈련을 시키신 것은 그만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정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무자비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가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하지 않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가난했지만 일하거나 공부하기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치기, 딱지치기, 연 날리기, 멱 감기, 구슬치기, 피라미 낚시 등 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집중하는 성격이라, 딱지치기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다 그만두어도 호롱불을 켜 놓고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함께 낚시하던 친구들이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도 저는 혼자서 피라미 낚시를 했습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공부하여 성공한 사람을 시골에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동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넓은 논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를 키우며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을 보았기에 굳이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목회하시는 달제라는 곳에 가서 1–2년 정도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아들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니까, 선생님께서 “이번에 전학 온 권성수 학생, 나와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컹 했습니다. 다른 학생 두어 명도 불려 나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눗셈 문제를 풀라고 하셨습니다. 제 옆의 두 학생은 푸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것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필만 들고 서 있는데 등 뒤에서 킥킥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사 아들이라면서 저것도 못 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성수 학생, 들어가도 돼요.”라고 하셨을 때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저는 노는 것을 줄이고 공부하기로 굳게 작정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일생에는 공부에 발동이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반 학생 60명 중에 8등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뒤에서 8등 정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공부해야 한다는 정보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님께서 수도 없이 공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버님과 주고받은 말이 기억납니다.

“성수야, 따라 해라.”

“…?”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공부!”

저는 따라 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라고 했습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정보가 저를 공부하도록 변화시켰다면 아버지께서 제게 그렇게 따라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공부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버님의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제초등학교에서 제가 그런 수모와 창피를 당하게 하셔서 정신을 차려 공부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정보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아는 대로 살도록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훈련은 100%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단지 말씀 정보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환경이 훈련환경으로 가장 적합한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훈련시킬 수만 있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과 기술과 경험을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쏟아 부을 수 있으니까, 1:1 훈련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1:1 훈련이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키울 때 한 자녀 한 자녀를 1:1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 있다고 해도 따로 따로 불러서 훈련시킬 때가 있어야 합니다. 편애하지 말고 다 사랑하면서도 하나씩 불러서 격려할 때도 있어야 하고 질책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1:1 훈련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바나바가 초신자 바울을 1:1로 훈련시켰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존대하면서 1:1 훈련을 시켰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1:1로 목회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1:1 훈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소그룹 훈련은 할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을 상대로 질문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 수백 명, 수십 명을 두고 한꺼번에 훈련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7명에서 10명 내외의 소그룹에서 질문도 하고 숙제도 주고 개별 관찰도 하면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13명이 넘어가면 개별적인 관심과 삶의 나눔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허겁지겁 숙제한 것 외에는 배운 것이 별로 없다는 고백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개별 관심과 삶의 나눔이 없으면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7–10명 내외가 소그룹 훈련으로 적합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소그룹 훈련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100% 성경적이고, 소그룹 훈련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거의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과 현실을 두고 고심하고 성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제자훈련은 정말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저는 위와 같은 답변을 얻은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만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 설교를 통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생명수액을 공급받지는 않고 계속 훈련만 했기 때문에 거만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 매순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배우지 않고 제자훈련 과정만 통과했기 때문에 거만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유명한 ○○교회에서 몇 기생으로 제자훈련을 받았다. 너희는 제자훈련이 뭔지도 모르지? 제자훈련도 안 받고 교회만 다녀? 제자훈련도 모르는 주제에 목회를 한다고?’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닮기 훈련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100% 성경적인 훈련을 가장 효과적인 소그룹으로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제자훈련은 성경적, 현실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제자훈련이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훈련의 원조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 부름 동행 파송**

오늘 본문을 봅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13](https://ref.ly/logosref/Bible.Mk3.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부름, 동행, 파송. 이것이 제자훈련의 3요소입니다.

**1) 부름**

예수께서 12명을 부르셨습니다. [16](https://ref.ly/logosref/Bible.Mk3.16)절부터 [19](https://ref.ly/logosref/Bible.Mk3.19)절까지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노래로 12제자 이름을 배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대오 시몬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입니다.”

12제자의 이름은 유대인들 중에 흔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 동명이인이 4명이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본래 시몬이고, 가나안인 시몬도 같은 이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과 알패오의 아들도 야고보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아들 누구’라는 식으로 지칭하는데, ‘유다 벤 허,’라고 하면 이는 ‘허의 아들 유다’라는 뜻입니다. 12제자의 이름이 흔하다는 것은 12제자가 보통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으로 성격이나 직업, 정치 성향이 다양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는 본래 강하거나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우레의 아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우레와 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배신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은 성격이 서로 달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직업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름의 시몬은 “가나안인 시몬”인데, 그는 로마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열심당원’이라고 지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정치적인 성향도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직업 성격 정치성향이 서로 다른 보통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획일적이지 않고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셨는데 이 부르심 속에 세우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고르신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며 다양한 그들을 예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내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보통 사람이었던 그들이 예수의 훈련을 받은 후에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든 맥도날드(Gordon MacDonald) 목사님이 분석한 5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VRP** (Very Resourceful People): 자원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

**VIP** (Very Important People): 매우 귀한 사람들

**VTP** (Very Trainable People): 훈련을 매우 잘 받은 사람들

**VNP** (Very Nice People): 매우 좋은(?) 사람들

**VDP** (Very Draining People): 힘을 쪽쪽 빼는 사람들

예수께서 부르신 12명이 처음에는 ‘그저 그렇고 그런’ VN[[1]](#footnote-1)P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때때로 예수와 다른 사람들의 힘을 쪽쪽 빼는 VD[[2]](#footnote-2)P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매우 귀한 VI[[3]](#footnote-3)P도 되고, 자원이 매우 풍부한 VR[[4]](#footnote-4)P도 되었습니다. 매우 ‘흔한’ 사람들이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는 매우 ‘귀한’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 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4–6](https://ref.ly/logosref/Bible.Eph1.4-6)).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저를 복음을 통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선택 하시고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났다거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정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예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거룩하고 흠 없게 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제자훈련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훈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도 세상이 우리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계속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제자훈련은 ‘신자를 세상과 구별’하는 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속으로 이것을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오늘의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신자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불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집트의 세속적 가치관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불려 나온 우리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세상의 젖을 떼는, 세상과 구별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죄가 가득하여 더러운 흠투성이 세상과 달리 죄악의 흠 없이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젖을 뗀 예수의 제자답게 살도록 훈련시키십니까?

**2) 동행**

[14](https://ref.ly/logosref/Bible.Mk3.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셔서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보통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 12명을 부르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가끔씩 만난 것이 아닙니다. 1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가끔 만나서 악수하며 인사나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언제 일어나시고 언제 주무시는지 함께 살며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예수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까지 다 보고 알았습니다.

사람은 듣고 보고 행함으로 배웁니다. 듣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 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일까요? 공자는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고 해 보면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본 것을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며 행동한 것을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자의 이 말은 학습의 효과 면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보다 해 보는 것이 깨닫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남이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자기가 해 보면 더 잘 깨우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신 데는 교육과 학습 효과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의 행하심을 보기도 하고 예수를 본 받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듣고 보고 행하는 학습을 다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행위와 기적을 보아야 목격자의 증언을 할 수 있으므로 예수의 행위와 기적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처럼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파송을 받아 해 보아야 합니다.

듣고 보고 해 보도록 “함께” 있을 때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깡패와 함께 있으면 폭력을, 도적과 함께 있으면 도적질을 배웁니다. 배우와 함께 있으면 연기를, 운동선수와 함께 있으면 운동을 배웁니다. 외국인과 함께 있으면 외국어를, 교수와 함께 있으면 지식을, 기술자와 함께 있으면 기술을 배웁니다. 현인과 함께 있으면 지혜를 배우고 선인과 함께 있으면 선행을 배웁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배웁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평화와 부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얻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고통의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왕궁에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하늘의 기쁨을 이 세상으로 운반해서 기쁘게 삽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와 접속되어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옵니다. 예수와 접속되면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흘러들어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의 말씀이 흘러들어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의 능력이 흘러들어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생명과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위로를 얻고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예수의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얻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의 미션을 얻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의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7](https://ref.ly/logosref/Bible.Jn15.7)절, [8](https://ref.ly/logosref/Bible.Jn15.8)절, [11](https://ref.ly/logosref/Bible.Jn15.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대구동신교회의 어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예수와 함께 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강성호 목사님께 훈련을 한 주 한 주 받으면서 그 배우는 만큼 제 영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었는데, 주님은 정말 제 물음과 질문 하나하나에 세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일 권성수 목사님의 설교로, 때로는 제자반에서 배우는 내용과 나누는 삶을 통하여, 때로는 독서과제를 통하여, 그리고 꼬박꼬박 해야만 해서 부담도 되었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를 통하여, 제 영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답을 차츰차츰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와 함께 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은 ‘예수와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훈련을 받는 우리는 평생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새마을’처럼 ‘예수마을’을 만들어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처럼 수도원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기도원이나 수도원, 혹은 훈련원에 들어가서 공동체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동체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평소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면서도 세상과 달리 구별되게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7장](https://ref.ly/logosref/Bible.Mt5-7)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생활이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수십 년 믿은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인격과 생활이 아닙니다. 초신자에게도 해당되는 인격과 생활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세상과 달리 선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접속되어 예수로부터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와 동행해야 합니다.

**3) 파송**

본문 [14](https://ref.ly/logosref/Bible.Mk3.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의 다음 구절이 “또 보내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 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자신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파송입니다.

파송에는 학습의 의미도 있고 사명 감당의 의미도 있습니다. 전자의 의미는 배운 것을 직접 나가서 해 보아야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직접 보았지만, 그것으로 온전하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자신이 직접 해 보는 그것이 온전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예수의 파송을 받고 세상에 나가 직접 전도하면서 전도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들은 행함으로 배우는 체험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때 실천 숙제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천하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파송이 사명 감당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함께 있으며 자신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후,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는 해야 하지만 세상에서 철수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지만 세상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를 억제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친구와 어울려 죄를 짓지 말고 세상 친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친구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 말고 세상의 정치 경제 법조 교육 문화 국방 등 각 분야에 들어가서 천국의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세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토끼 구멍 그리스도인’(rabbit-hole Christian)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살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립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그러합니다. 이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제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을 미칠 시간과 여유를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토끼 구멍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 병 밖으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주방에 있는 병 속의 소금은 짠 맛을 내지 못합니다. 병 밖으로 나가야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금 병 밖으로 나가서 짠 맛을 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https://ref.ly/logosref/Bible.Mt10)은 예수께서 세상으로 파송한 제자들이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훈련 초기부터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 믿고 수십 년 훈련 받은 사람만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이 아닙니다. 초기 신자부터 훈련시키시면서 바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영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기간 집중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기간 성숙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회자 훈련을 받아야 하고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답게 되기 전에 제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 중에도 생명사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실제로 숙제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회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숙제가 바로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한 동안 교회성장이 유행하더니 요즈음은 교회건강이 유행합니다. 교회성장은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교회건강은 교인들의 성숙을 위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성장은 양적인 성장에, 교회건강은 질적인 성숙에 초점을 둡니다.

교회성장과 교회건강은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말도 제대로 성장할 때는 옳은 말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도 제대로 건강하기만 하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고, 성장하며 건강해야 합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회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교인들 교육에만 집중하면 오래 믿고 많이 알지만 전도하지 않는 교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면 대학원에 진학하고, 대학원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면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평생학생’처럼 우리는 실천 없이 평생 배우기만 하는 ‘만년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면서 동시에 실천하고, 평생 실천하면서 동시에 배우는 ‘실천적 지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 없는 사람의 말은 들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배워서 지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의 말은 듣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열심히 실천하여 듣기 쉬운 말로 지식을 전해야 합니다. 지식을 얻되 그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아는 지식을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여 배우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쉽고 재미있게 생활에 적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3. 말씀/ 치료 사역**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본문 [14–15](https://ref.ly/logosref/Bible.Mk3.14-15)절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즉,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함께 귀신을 축출하는 치료 사역을 했습니다.

생명사역은 본질적으로 천국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사역과 고치는 치료사역입니다. 제자훈련은 말씀사역과 봉사/치료사역을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사역과 봉사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11](https://ref.ly/logosref/Bible.1Pe4.11)).

베드로는 “말하려면”과 “봉사하려면”으로 나누어 말했습니다. 이는 말씀사역과 봉사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이며, 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사역입니다.

옥한흠 목사님께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교재를 참 잘 만들어 내셨습니다. 제자훈련에 이어지는 과정이 사역훈련입니다. 이는 제자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 과정만 거치고 ‘나는 몇 기로 제자훈련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중직후보 자격을 얻었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역훈련 교재가 말씀사역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순장이나 교사로 말씀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전도, 예배, 교제, 교육/훈련, 봉사/사역 등 5대 사역 분야에서 말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기는 봉사사역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사역뿐만 아니라 치료를 통한 봉사사역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하게 하신 말씀사역과 봉사사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 말씀 사역**

[14](https://ref.ly/logosref/Bible.Mk3.14)절 본문은 전도만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도 하고 교육 훈련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20](https://ref.ly/logosref/Bible.Mt28.18-20)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https://ref.ly/logosref/Bible.Mk4)에서는 전도를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https://ref.ly/logosref/Bible.Mt28)에서는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와 교육, 이 둘 중 하나씩만 언급하신 것은 그 중 어느 하나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적절한 하나씩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https://ref.ly/logosref/Bible.Mk4)은 전도하러 파송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도가 언급되었고, [마태복음 28장](https://ref.ly/logosref/Bible.Mt28)은 만민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선교의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이 언급된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말씀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확인하는 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은 말씀 훈련이고, 말씀 확인 훈련이고, 말씀 순종 훈련입니다. 말씀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체감하십니까?

요즈음 교과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며 일부에서는 왜 국정교과서 사용을 반대합니까? 이는 미래의 보수당원, 미래의 진보당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어릴 때부터 특정 ‘말씀’을 넣어주면 후에 그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하는 인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대학생 시절에 마르크스 책을 읽고 그것을 신봉한 사람은 평생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전향자가 가뭄에 콩 나듯 있기는 하지만, 마르크스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말씀’을 수용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마르크스 책을 읽은 사람은 성경도 마르크스의 방법론에 따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목회도 마르크스의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말씀’이 마음에 자리잡고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사람의 생각에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마르크스를 언급했는데, 자본주의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세속적이고 공산주의도 세속적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현실적으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가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늘 따져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사탄의 ‘가짜 말씀’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말씀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짜 말씀’을 퍼뜨려 놓았고, 지금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가짜 말씀’을 심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가짜 말씀’을 심은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가짜 말씀’을 계속 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아니 착하게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지옥은 없다.” “동성애도 괜찮다. 동성애는 DNA가 다르다.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좋을 대로 살면 된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다 박멸해야 한다.” 이렇게 사탄은 ‘가짜 말씀’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가짜 뉴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도 ‘가짜 뉴스’의 영향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도 합니다.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가 뜨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가짜와 진짜의 전쟁’ 시대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천 년 전에 이미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말씀 훈련, 말씀 확인 훈련, 말씀 순종 훈련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동료에게 하나님의 복음 진리 말씀을 퍼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제자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등에서 제자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말씀훈련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식탁에서, 자동차 안에서, TV 앞에서 말씀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옥한흠 목사님은 [이사야 60장 22](https://ref.ly/logosref/Bible.Is60.22)절과 [골로새서 1장 28–29](https://ref.ly/logosref/Bible.Col1.28-29)절 말씀에 큰 기둥 같은 방점을 찍으시고 혼신의 힘을 쏟아 강조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 60:22](https://ref.ly/logosref/Bible.Is60.22))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1:28–29](https://ref.ly/logosref/Bible.Col1.28-29))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훈련된 한 사람이 천 명을 이깁니다. 말씀에 올인(all-in)해서 말씀대로 사는 약한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룹니다. 제자훈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게 하여 한 사람이 천 명을 이기고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각 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훈련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강국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 앞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여학생인데, 그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어떤 집단의 지원을 받아 동성애를 옹호하는 오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복음에 따라 마이크를 잡고 우리나라를 바로 잡고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셉,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놈이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국권을 뺏는데 우리 인민들은 원수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의롭게 죽을 것인가!”

1905년 겨울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한 청년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서성이던 일본 순사가 깜짝 놀라 칼을 빼들고 달려들자 이 청년은 순사를 순식간에 발로 차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순사들은 총을 쏘기 시작했고, 이 청년을 비롯한 청년들은 기왓장을 집어던지면 싸웠습니다.

그 청년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던, 국권을 지키기 위해 총칼 앞에 맞섰던 백범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로 대권을 잡고 ‘가짜 공약’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민족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퍼뜨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2) 봉사 사역**

봉사사역은 말씀사역을 증명하는 물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라면 언행불일치의 모순에 빠집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봉사하는 사역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본문 [15](https://ref.ly/logosref/Bible.Mk3.15)절의 말씀처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봉사사역입니다. 예수께서는 환자와 약자를 치료하시되, 귀신이 들린 사람이나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예수의 귀신 추방사역은 천국의 치료사역 중 하나였고, 봉사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은사와 기도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은사와 기도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령을 추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악령들도 한 마디의 말씀으로도 추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12제자도 예수와 동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교회 창설 사역자 ‘사도’로서 우리보다 더 큰 능력으로 악령을 추방했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나 교회 창설자 사도와 같은 동급의 능력으로 악령을 추방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은사와 기도로 악령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악령에게 시달리는 어떤 성도도 은사와 기도로 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동신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성도들을 치료하는 영적인 전투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영적인 전투 방법’으로 여러 성도들이 영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전투 방법 (**[**에베소서 6:10–20**](https://ref.ly/logosref/Bible.Eph6.10-20)**)**

1. 과거에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가해자는 용서하고,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자신의 죄는 회개하십시오.

2. 자신과 가정에 숨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청산하십시오.

3.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고백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하십시오.

4. “예수님이 나를 악령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계속 믿으십시오.

5. 악령이 공격할 경우 바로 그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들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본인도 명령하고 가족도 함께 명령하게 하십시오.

6. 혼자서나 가족들과 함께 257장, 258장, 259장, 260장, 261장, 262장 찬송을 수시로 부르십시오.

7. 다음 구절들을 암송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https://ref.ly/logosref/Bible.2Co5.17)).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18](https://ref.ly/logosref/Bible.1Co1.1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https://ref.ly/logosref/Bible.Ro8.28)).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1–32](https://ref.ly/logosref/Bible.Jn8.31-3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4](https://ref.ly/logosref/Bible.Php4.4)).

8. [에베소서 6장 14–20](https://ref.ly/logosref/Bible.Eph6.14-20)절 말씀대로,

✽ 진실하게 사십시오.

✽ 바르게 사십시오.

✽ 평안하게 사십시오.

✽ 믿음으로 사십시오.

✽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하면서 성경을 성령의 검으로 활용하십시오.

✽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9. 악령의 공격을 받을 때 아래의 기도를 읽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씻으시고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의 간섭을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악령이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공격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활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 악령들의 공격이 금방 사라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실하게 믿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엡 6:10](https://ref.ly/logosref/Bible.Eph6.10); [요 15:7](https://ref.ly/logosref/Bible.Jn15.7)). 악령들을 의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저는 위의 전투방법대로 싸워서 악령을 이긴 성도들을 상당수 알고 있습니다. 악령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점진적 성화(聖化)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악령은 언제든지 죄를 발판으로 삼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과정에서 악령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얻는 영적인 자유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비례합니다.

우리 대구동신교회의 경우, 주일 대예배와 금요기도회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꾸준하게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반드시 악령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립니다.

숲 속에 들어가면 삼림욕을 하여 몸이 맑아지는 것처럼 예배의 숲 속에 들어오면 말씀욕(浴)을 하기 때문에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지면 더러운 영인 악령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악령에게 시달릴 때 계속 악령을 의식하면 악령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그럴 때마다 악령을 의식하기보다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를 통해 영적인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악령을 물리치게 되고, 그 결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소그룹 제자훈련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제자훈련을 하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만큼 생명사역에 대하여 깨고 깬 만큼 생명사역으로 공헌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는 훈련을 하는 만큼 예수의 생명을 체험한다는 면에서 깨고 예수의 생명에 대해 깨우친 만큼 예수의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 내셔서 함께 있게 하심으로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사도’로 세상에 파송을 받아 예수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제자훈련은 세상으로 파송 받아 말씀사역과 봉사사역을 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지금은 말씀 전쟁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말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에서 가짜와 진짜가 부단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퍼뜨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봉사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령을 추방하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는 봉사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아 생명사역을 감당하면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립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생명사역을 감당하여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사역: 제4강

생각의 틀 바꾸기

[**잠언 4:23**](https://ref.ly/logosref/Bible.Pr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목회하는 동안 이단의 의식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교인 두세 사람이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단으로 넘어간 청년도 있고 이단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온 청년도 있습니다. 이단이 정통 교인으로 가장하여 직원으로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단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교재를 구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단이 성경의 몇 구절만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교인들을 현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교재를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단은 성경의 무수한 구절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단은 몇 개월 만에 정통 교인의 두뇌 속에서 정통신앙을 씻어내 버리고 그 두뇌 속에 이단사상을 새겨 넣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정통교인이 이단사상에 빠져 골수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충격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교수 시절에 마르크스 이념의 의식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전한 학생이 마르크스 이념 교육을 받으면 단 몇 달 만에 그 이념에 미쳐 버립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신앙 간증을 하고 캠퍼스를 빠져 나가는데, 마르크스 이념에 빠진 어떤 여학생이 그 자동차 앞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여학생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단과 이념은 어떻게 단 몇 개월 만에 멀쩡하던 사람을 이단이나 이념의 골수분자로 만들어 버리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던 의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수십 년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체념하기가 일쑤입니다. 이단에서는 단 몇 달 만에 ‘그 사람 완전히 바뀌었어!’라고 쾌재를 부릅니다. 물론 그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어떻게 사람을 몇 달 만에 그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언급했지만 그것은 ‘의식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을 바꾸면 사람이 바뀝니다. 정통 의식을 이단 의식으로 바꾸면 골수 이단이 되고, 정상 의식을 마르크스 의식으로 바꾸면 마르크스주의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의식을 바꾸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식’을 바꾸는 길 즉, 복음 의식화의 길은 무엇일까요?

복음 의식화는 복음으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왜 이 복음 의식화에 실패했을까요? 이단과 이념은 파멸의 사상으로도 몇 개월 만에 사람을 바꾸어 버리는데,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수십 년이나 전했는데도 왜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잠언 4장 23](https://ref.ly/logosref/Bible.Pr4.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의 이 잠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혜서인 잠언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윌 만치니의 비전 도표를 사용했으나, 이제 그 도표의 ‘생명’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6각형 도표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생명사역 6각형 도표**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6각형 도표의 내용 중 ‘생명사역의 전략’의 하나인 ‘생각의 틀 바꾸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전략 중, ‘제자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의 틀’ 바꾸기가 생명사역의 전략일까요? 이것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1. 생각의 틀이 인생을 결정**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100% 신인(神人, God-man)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인간들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역사상 최고의 현인(賢人)으로,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잠언은 장차 왕이 될 왕자의 교범(Prince’s Manual)입니다. 솔로몬은 왕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한 잠언 집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 생각의 틀**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창 2:7](https://ref.ly/logosref/Bible.Ge2.7)). 흙이 육체이고, 생기가 영혼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영혼이 육체를 떠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영혼을 혼, 마음, 속사람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음은 영혼입니다. 마음은 사람 전체, 즉 전인(全人)의 통제본부입니다. 육체의 통제본부는 두뇌입니다. 마음은 두뇌를 통하여 육체를 통제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 도표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두뇌는 MRI를 통해 보이기 때문에 도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통제를 받아 육체를 통제하는 두뇌를 중심으로 인간통제 도표를 그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각의 틀 도표**

텍스트, 인간의 얼굴, 사람,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사람의 통제본부에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의 틀’은 생각 덩어리입니다. 생각은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틀’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의 틀’ 속에 ‘전제(presuppositions), 신념(basic beliefs), 근본적 헌신(basic commitments)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뜻으로, 다른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전제’는 이미 깔려 있는, 모든 생각의 판단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전제’는 모든 것에 우선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전제’에 대하여 질문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거의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전제’를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제’는 ‘신념’입니다. 사람은 자기 ‘전제’에 인생을 ‘올인(all-in)’합니다. ‘전제’는 ‘뛰어들어 받아들이고 인생을 던진다.’는 각도에서 보면 ‘근본적 헌신’입니다.

‘생각의 틀’에서 지정의(知情意)가 나옵니다. ‘지(知)’는 ‘생각하는 것’이며 ‘정(情)’은 ‘느끼는 것’ ‘의(意)’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에서 ‘생각(知)’이, ‘생각’에서 ‘느낌(情)’이, ‘느낌’에서 ‘행동(意)’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며 이 ‘습관’대로 사는 것이 ‘인격’ 즉, 사람 됨됨이입니다. 이 사람 됨됨이가 평생 계속 되면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인생의 원천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인생을 고치고 싶으면 마음을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고 싶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면 됩니다. 자녀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면 됩니다. 마음을 바꾸는 길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 속에 바른 것, 좋은 것, 선한 것, 깨끗한 것을 넣어 주면 결국 행동과 습관도 바뀌고 인생도 바뀝니다([빌 4:8](https://ref.ly/logosref/Bible.Php4.8)).

뉴욕 리디머 교회(Redeemer Church)의 팀 켈러(Tim Keller)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음은 감정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헌신 희망 신뢰의 원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머리(mind)가 정당화하고, 정서가 갈망하고, 의지가 수행합니다.” (Tim Keller, *Encounters with Jesus: Unexpected Answers to Life’s Biggest Questions*, 122)

‘생각의 틀’ 속에 바른 전제, 바른 헌신, 바른 신념이 들어 있으면 인생이 바로 잡힙니다. 신념이 바른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삽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바른 신념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공장들을 빼앗을 수 있고, 내 건물들을 불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있는 한, 나는 내 사업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켜 놓을 것입니다” (John Maxwell, *The Leader’s Attitude*).

포드는 공장들을 빼앗기고 건물들이 불타도 직원들만 있으면 사업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다는 강인한 신념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래의 리더 발굴의 천재 데일 카네기(Dale Carnegie)도 올바른 신념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카네기는 “억만 장자 43명을 어떻게 고용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신입사원 때는 억만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재 개발은 큼 캐기와 같습니다. 흙 수 톤을 캐내어야 금 1온스(28.3 그램)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금광에 갈 때는 흙을 캐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금을 캐러 갑니다” (Maxwell, *Leader’s Attitude* 37).

**2) 잠언의 경우**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의 틀’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비뚤어진 마음은 바른 ‘생각의 틀’로 잘 고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어떤 생각의 틀로 고치고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까?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은 지혜로 ‘생각의 틀’을 고치고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볼 때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입니다([1:7](https://ref.ly/logosref/Bible.Pr1.7)).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접속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즉 의(義)가 지혜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즉 악(惡)이 우치(愚癡)라고 합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의(義)를 취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되 악인에게 당하지 않고 악인을 선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https://ref.ly/logosref/Bible.Pr1.1)절부터 [6](https://ref.ly/logosref/Bible.Pr1.6)절까지에 지혜, 훈계, 명철, 공의, 정의, 정직, 슬기, 지식, 근신, 학식, 지략 등 다양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이 단어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혜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 지혜 속에 이런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언에 의하면 자녀가 특별히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먼저 살면서 먼저 깨달은 부모에게 사랑의 교훈을 받아야 지혜롭게 됩니다. 때문에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으로 타이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타이를 때 특별히 성(性)과 술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2:16–17](https://ref.ly/logosref/Bible.Pr2.16-17); [5:15–20](https://ref.ly/logosref/Bible.Pr5.15-20); [6:24–35](https://ref.ly/logosref/Bible.Pr6.24-35); [7:6–23](https://ref.ly/logosref/Bible.Pr7.6-23); [23:27–35](https://ref.ly/logosref/Bible.Pr23.27-35)). ‘이성 조심!’ ‘쾌락 조심!’이 구체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 속에 이런 지혜를 채워야 합니다. ‘생각의 틀’을 지혜로 채우면 생각과 느낌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이 지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을 고치고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3) 신약의 경우**

예수께서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음식은 입으로 먹고 배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 15:18–20](https://ref.ly/logosref/Bible.Mt15.18-20)).

예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요한복음 15장](https://ref.ly/logosref/Bible.Jn15)의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생각과 느낌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이 깨끗해집니다. 바울 사도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로마서 8장](https://ref.ly/logosref/Bible.Ro8)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4–6](https://ref.ly/logosref/Bible.Ro8.4-6)).

바울은 삶을 ‘행하다’, 즉 ‘걷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부패성인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걷다’라는 단어로 인생을 말한 다음 바로 다음 절에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육체’(죄의 부패성)의 생각을 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의 틀’에 ‘성령의 생각’을 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영혼, 즉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삼 1:2](https://ref.ly/logosref/Bible.3Jn2)). 영혼, 즉 마음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토록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솔로몬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둠으로써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왕상 11](https://ref.ly/logosref/Bible.1Ki11)).

아들 르호보암은 부왕인 솔로몬이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결국 아버지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나쁜 본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지 않고 전갈과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왕상 12장](https://ref.ly/logosref/Bible.1Ki12)).

마음을 고치고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마음을 고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처럼 마음 지키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생살이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생각의 틀 바꾸고 지키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지킬 수 있을까요? ‘생각의 틀’ 속에 무엇을 새겨 넣으면 될까요?

**1)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면 됩니다.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인생,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 119:9](https://ref.ly/logosref/Bible.Ps119.9)).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키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1편 1–2](https://ref.ly/logosref/Bible.Ps1.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https://ref.ly/logosref/Bible.Jn15.7)).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요 5:39](https://ref.ly/logosref/Bible.Jn5.39)). 예수께서 하신 “내 말”은 결국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우리는 바르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액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2–17](https://ref.ly/logosref/Bible.2Ti3.12-17)).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서 성경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배우면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심하는 반신반의(半信半疑)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으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주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 22:18–19](https://ref.ly/logosref/Bible.Re22.18-19)).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묵상하고 교육하고 전파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을 성경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은 말씀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은 말씀 확인 훈련, 말씀 순종 훈련, 말씀 실천 훈련입니다. ‘생각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말과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2) 체계적인 말씀으로**

‘생각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는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단과 이념 단체는 그들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새겨 넣을 때, 그것을 체계적인 틀로 만들어 학습자의 ‘생각의 틀’ 속에 넣습니다.

이단은 강의 주제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생각의 틀’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합니다. 어떤 주제에 관하여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학습자의 ‘생각의 틀’을 연구합니다.

그런 후에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데, 학습자가 정통사상과 다른 내용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질문할 것에 대비하여 두 사람의 바람잡이를 둡니다. 학습자가 질문하면 곁에 있던 바람잡이가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학습자가 그것이 이단 사상인지 의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후, 그 다음 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소위 이단의 세뇌공작입니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을 다시 정통신앙으로 돌아오게 할 때도 이와 같은 작업을 합니다. 어떤 주제를 이단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둡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이단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답변해 주어 정통 진리를 의심 없이 다시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의 틀’은 말 그대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듣거나 무슨 글을 읽을 때에 기존의 ‘틀’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기존의 ‘틀’과 어긋날 때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나 교육이나 강의나 훈련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생각의 틀 속에 전제, 신념, 기본적 헌신 등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틀’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체계를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을 말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경적 체계신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지난 17년 동안 바로 이 작업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체계신학을 설교와 교육과 강의와 훈련을 통하여 ‘생각의 틀’ 속에 새기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성경 자체를 우리의 궁극적인 전제로 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존 프레임(John Frame)은 성경이 우리의 전제라는 것과 성경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야 할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전제는 다른 것에 우선하는 신념, 그러므로 다른 것의 기준이 되는 신념이다. 궁극적 전제는 그 이상 어떤 다른 것도 우선하지 않는 신념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성경 내용이 궁극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 … 이 교리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lordship)이 표출된 것이다. … 우리는 인간의 지식은 종 지식(servant knowledge)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려고 할 때 우리의 최초의 관심은 우리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여 주님의 판단에 따르는 것, 주님을 따라 주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John Frame,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45*).

‘전제’는 ‘마음의 근본적인 헌신’(basic commitment of the heart)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제로 삼고 성경에 우리 마음을 올인(all-in)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인 성경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임의로 선택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제에는 가장 강력한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인간이 더듬어 알게 된 것이지만, 성경 지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이 가장 합리적인 근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기준을 버리면 거짓된 기준을 받아들입니다. 불신자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 거짓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라는 가장 강력한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자신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만, 성경을 전제로 하는 신자는 이미 편향과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도 편향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불신자도 그러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편향과 편견을, 불신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편향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전제는 신앙이고, 불신자의 전제는 불신앙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불신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불신앙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 순환논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는,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으로 끝나는 순환논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성경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하여 성경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순환논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전제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전제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채우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절대기준으로 전제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채우고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음을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3) 신학/ 목회의 접목**

성경을 절대기준으로 전제하는 것을 전제주의(presuppositionalism)라고 합니다. 전제주의는 성경적 신앙이 합리적 사고(思考)의 유일한 기초라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다른 모든 세계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생각의 틀’ 입니다.

전제주의는 전제를 떠나서는 인간 경험을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불신자와 토론할 때에도 중립적인 통념을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 전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동시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전제나 성경 계시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로 토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제주의는 이성이나 경험이나 주관적인 감정을 궁극적인 전제로 하는 입장과 확연히 다릅니다. 성경을 전제로 하든 이성이나 경험이나 주관적인 감정을 전제로 하든, 전제는 색안경과 같습니다. 색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색안경을 통하여 해석이 되는 것처럼, 무엇을 전제로 하든 그 전제가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제로 삼고 성경 전체의 체계적인 사상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채우고 새겨야 우리의 인생이 성경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체계신학으로 ‘생각의 틀’을 채우는 것이 바로 생각의 틀을 바꾸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체계신학의 틀에서 생각이, 생각에서 느낌이, 느낌에서 행동이, 행동에서 습관이, 습관에서 인격이, 인격에서 인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14년 간 가르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성경을 전제로 삼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을 따라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체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 성경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을 배웁니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성경신학: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해석학, 신약/구약 개론, 신약/구약 주석, 신약/구약 신학, 주제별/ 각권 공부

조직신학: 성경론,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변증학, 기독교 윤리

역사신학: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현대 교회사, 한국교회사

실천신학: 목회학, 예배학, 설교학, 전도학, 교육학, 제자훈련, 이단 비판

선교신학: 선교학 개론, 선교역사, 인류학, 맥락화(contextualization), 문화와 종교

신학교에서 교육하던 저는 대구동신교회에서 위의 성경신학 과목 중에서 신구약 각권 강해와 주제별 공부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가르쳐도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이라는 강좌로 조직신학 중, 성경/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등을 가르칩니다.

역사신학은 거의 가르치지 못하지만 실천신학 과목 중에는 목회학으로 생명사역을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하고, 전도폭발 과정에서 타종교 비판을 가르칩니다. 선교신학 과목 중에서는 선교헌신 예배와 선교 총회 주일에 선교학과 선교역사의 일부를 가르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목회와 신학의 괴리가 큽니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은 목회현장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과 그 이후에 연구한 것을 쉽고, 재미있게 생활에 적용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과 목회를 접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을 가르치던 저를 대구동신교회 현장 목회자로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신학자의 눈으로 목회현실을 보고 신학을 목회에 접목하는 데에 공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자의 눈으로 옥한흠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보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옥 목사님은 학원선교단체에서 하던 제자훈련을 기성교회에 도입하여 참된 의미의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하던 한국교회에, 평신도를 ‘작은 목회자’로 깨우고 훈련시켜 그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퍼뜨리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옥한흠 목사님의 공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옥한흠 목사님의 제자훈련 목회를 대구동신교회에 도입하여 교인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교인들의 삶이 변한다는 근본적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세 사람이 이단으로 넘어간 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9개월 만에 사람을 나쁜 방향으로 확실하게 바꾸는데, 정통교회는 왜 교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심의 결과 ‘생각의 틀’을 바꾸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생각의 틀’ 바꾸기 목회는 신학을 목회에 쉽고 재미있게 생활에 적용해서 끌어들이는 목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것을 해 본 결과, 교인들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매해 4월 마지막 주간 2박 3일 간의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 목회와 ‘생각의 틀’ 바꾸기 목회를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생각의 틀’ 속에 성경적 체계신학을 새겨주면 교인들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 목회자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서 신학자인 제가 목회자들에게 성경적인 체계신학의 내용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에는 생명사역의 정신과 원리와 방법을 가르치고, 그 후에는 제가 하는 목회의 내용을 전국 목회자들에게 계속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참가한 목회자들이 저와 함께 목회를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사역 컨퍼런스에서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구동신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사역은 바로 성경적 체계신학을 ‘생각의 틀’ 속에 넣고 새기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와 교육과 강의와 훈련을 통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훈련’(성조훈련)에서만 성경적 체계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신교회의 생명사역 전체가 이것을 근거로 하여 성경적 체계신학을 전하고 새기는 사역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동안 성경 구절을 찾고 기록하면서 체계적인 성경 사상을 훈련 받는 ‘성조훈련’은 우리 교회에서도 반응이 매우 좋았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좋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생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성경적 사상체계를 배우게 되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신학사상을 배우는 과정에서 병을 고친 분도 있었고, 아들을 잃은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된 분도 있습니다.

울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성조훈련’을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서 이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성조훈련’에 3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64명이나 등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되어 우리 교회의 생명사역에 대한 간증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교회는 ‘성조훈련’의 돛을 달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경의 체계적인 사상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사상의 틀로 세상을 보고 듣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이단이나 특정 이념이나 세속에 넘어가지 않고 건전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 신념을 바꾸도록 결단하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의 틀’, 즉 신념을 바꾸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실감이 나십니까? 신념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십니까?

**1) 실제적인 점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신념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아래 분야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신체:** ‘나는 아무리 해도 살을 뺄 수 없어. 다이어트가 내게는 소용이 없어. 나는 운동도 절대 못해!’

**감정:** ‘나는 감정 통제를 못해. 화가 나면 있는 대로 터뜨려야 해. 참고 견디는 것은 절대 못해!’

**머리:** ‘나는 머리가 나빠. 머리 좋은 사람이나 큰일을 하는 거지. 난 안 돼!’

**관계:**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못 생겼어. 나는 관계 맺을 줄 몰라. 나에게 맞는 배필이 없어. 나는 결혼해도 못 살 거야!’

**재정:** ‘돈도 버는 사람이 벌어. 나는 못 벌어. 나는 평생 빚도 다 갚지 못할 거야. 나는 가난하게 살 운명이야!’

**운동:** ‘나는 운동은 못 해. 탁구를 해도 포어(fore) 공격은 할 수 있지만, 백(back) 공격은 절대 안 돼!’

여러분이 위와 같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의 틀’에 매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신체:** 자신은 왜 살을 빼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밥을 조금씩 덜 먹고 꾸준히 운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감정:** 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화를 터뜨리는 자신을 정당화합니까? 괴로워도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즉시 화내지 말고 속으로 ‘하나, 둘, 셋 …’ 하면서 천천히 20까지 센 후 화내도 되지 않습니까?

**머리:** 왜 자신은 머리가 나빠서 큰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 수재는 20%, 천재는 30%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의 70%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10%만 더 써도 멋진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계:** 왜 자신이 못생겨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 테레사는 152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키에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않았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그들을 도울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 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의 지혜로 부지런하게 일하면 그만큼 돈을 벌수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지혜롭게 부지런히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 어느 날 저는 저의 ‘생각의 틀’이 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탁구를 잘 치는 사람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탁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나는 백(back) 공격은 절대로 못 해. 백은 공을 받아 넘기기만 하는 것이지 그걸로 공격은 못 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 공격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백 공격도 연습하면 될 거야. 자꾸 연습하면 조금씩 좋아지겠지.’ 하며 생각을 바꾸고 백 공격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 공격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포어(fore) 공격처럼 능숙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니 탁구도 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생각의 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전진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제한시켜 놓은 ‘생각의 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 있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해 보십시오. 성경 훈련을 받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을 받으십시오.”

“제자 양육원 양육을 받으십시오.”

“사랑방에서 교제하십시오.”

“베스트 성경대학에서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제자/사역/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아무리 권면해도 여러분이 ‘생각의 틀’을 바꾸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자훈련에 대해 설교하면서 자녀들로 성경을 암송하게 하되 재미있게 게임하며 암송하게 하는 ‘어와나’(AWANA)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120명 모집 정원이 바로 찼습니다. 저는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틀’ 속에 성경의 체계적인 진리를 새겨 주면, 아이들의 일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고정된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존의 ‘생각의 틀’을 바꾸십시오.

**2) 구체적인 방법**

빌딩 청소부였던 안서니 라빈스(Anthony Robbins)가 10여 년 후에 자가용 헬기를 타고 강의하러 다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속에 있는 거인을 다시 깨우세요〉(*Re-waken the Giant Within*) 라는 책에서 ‘생각의 틀’ 즉 ‘신념’을 바꾸는 구체적인 단계를 3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제1단계:** 낮아진 수준을 높이세요 (Raise your standards). 변화를 일으키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낮은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앤서니 라빈스에게 빌딩 청소하던 인생을 바꾼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자신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제2단계:** 제한된 신념을 바꾸세요 (Change your limiting beliefs). 수준을 높이기 전에 내가 내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과 내가 내 수준을 높이고 말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3단계:** 기존의 전략을 바꾸세요 (Change your strategy). 수준에 맞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뭔가 바꾸어야 한다. 내가 그걸 바꾸어야 한다. 나는 그걸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할 때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라빈스는 신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수준을 높이고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이미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해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도록 만드는 확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신념은 질문하지 않는 요구와 같습니다. 신념은 우리에게 지금 형편이 어떻고,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신념은 모든 행동, 모든 생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느낌을 형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념체계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이루기 전에 새로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신념을 통제하지 않고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의 수준을 올릴 수는 있으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의 뒷받침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간디가 비폭력 저항의 능력을 혼신의 힘을 다해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성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똘똘 뭉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깊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고 헌신이 약한 사람을 뒤흔들어 버렸을 도전에 응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을 불어넣는 신념--이런 확신--이 인류 역사에 모든 위대한 성공의 배후에 있는 힘입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어떤 상담 심리치료사는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것은 자신의 습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은 그대로 살면 편한 것입니다. 늦잠 자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늦잠을 자는 것이 편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불편합니다. 야식을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습관이 편하고 하루라도 야식을 먹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이런 습관을 고쳐야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까?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 도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습관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습관은 행동에서, 행동은 느낌에서, 느낌은 생각에서, 생각은 ‘생각의 틀’에서 옵니다. 때문에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고쳐야 합니다. ‘나는 늦잠 자는 형(型)이야. 나는 새벽형이 아니라 저녁형이야. 나는 늦잠을 자지 않고는 못 배겨.’ 이런 생각의 틀을 고쳐야 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 6:9–11](https://ref.ly/logosref/Bible.Pr6.9-11)).

이런 성경 말씀으로 나태를 정당화하는 자신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3) 말씀을 조각해야**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의식이 없으면, 그저 교육과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뀐다는 이상적인, 그러나 비현실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는데 바뀌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40년 전의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사람이다!”

어느 은퇴 목회자의 자조 섞인 탄식은 바로 자신의 목회가 이런 착각에 근거한 목회였다는 것을 은퇴할 때에야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목회자가 보람과 환희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교인들이 설교 시간과 교육 시간에 배운 것을 ‘설사’해 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신학’이라는 말을 써서 적절할까 싶지만, 교인들이 ‘설사 신학’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통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교인들에게 “조금 전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라고 물으면, 95%가 “잘 모르겠는데요. 잊어버렸습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것도 거의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 ‘나비’가 살짝 날아 앉았다가 날아가 버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비처럼 마음속에 날아 앉았다가 예배가 끝나면서 바로 날아가 버리는 현상.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를 정체와 쇠퇴 속으로 몰고 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설교와 교육의 ‘나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조직신학의 체계를 단계적으로 쉽고 재미있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의 틀 속에 조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에서는 암기 학습으로 나타납니다. 16년간 오직 기억 연구에만 몰두하여 망각주기를 그래프로 그린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Herman Ebbinghaus)입니다.

그는 뇌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데 10분밖에 안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암기한 것이 10분 후부터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암기한 것이 1시간 후에는 50%, 하루 후에는 70%, 한 달 후 80%가 뇌에서 지워집니다.

암기한 것을 뇌에 영구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으로 반복하여 복습하면 됩니다. 한 번 총 복습하는 것보다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분산하여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운 것을 10분 후에 복습하면 그것이 하루 갑니다. 1일 후 복습하면 그것이 1주일 갑니다. 1주일 후 복습하면 그것이 1개월 갑니다. 1개월 후 복습하면 그것이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기억됩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오래 지속하는 것이 좋은 교육입니다. 학습 내용을 생각의 틀 속에 반복적으로 조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중문화의 기수 오프라 윈프리는 어릴 적에 ‘암송 공주’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 말씀을 줄줄 암송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녀는 성경의 진리를 자신의 뇌 속에 장기 보존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조각한 것입니다.

주전 1세기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4세가 구약 성경을 불태우도록 명령했습니다. 1242년 파리에서는 24대의 마차에 가득 실린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1288년 트로에스의 거리에서 100명의 유대인이 갇힌 유대 도서관이 불태워졌습니다. 교황 클레멘트 4세는 전 유럽의 탈무드를 압수하여 불태우도록 명령했습니다. 1299 베네딕트 13세, 1510년 멕시밀리안 황제, 18세기 덴보스키 추기경이 유대인의 책을 불태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나치스가 전 유럽의 유대 관련 서적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적 조직신학 체계를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암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암기를 통해서 하든 체계적인 복습을 통해서 하든, 우리는 성경적 조직신학 체계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의 틀 속에 조각해야 합니다.

마음이 인생의 원천입니다. 마음만 바로 잡으면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잘못 되었을 경우 습관만 고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듭니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습관에 대한 ‘생각의 틀’부터 고쳐야 합니다.

‘생각의 틀’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틀’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고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생각의 틀’을 바꾸고 지키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의 틀’을 바꿀 때 ‘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이 ‘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로 된 성경의 체계신학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사역은 성경적 생각의 틀에 맞추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와 교육과 강의와 훈련을 통하여 성경적인 체계신학을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교육과 강의와 훈련에 뛰어 들어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익히고 열심히 새겨야 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지키자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서 더 나은 인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존의 ‘생각의 틀’에 안주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고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사역: 제5강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10:31**](https://ref.ly/logosref/Bible.1Co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생명사역 6각형 도표**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을 핵심 개념으로 한 생명사역 6각형 도표를 놓고 보았을 때 생명사역을 위하여 태도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내용과 생명사역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명사역의 미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전략도 살펴보았는데, 그 첫째가 제자훈련, 둘째가 생각의 틀 바꾸기였습니다.

오늘은 생명사역을 왜 하는 것인지, 그 이유와 동기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https://ref.ly/logosref/Bible.1Co10.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생명사역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으며 어떤 문맥에서 나온 것일까요?

**1) 본문의 의미와 적용**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https://ref.ly/logosref/Bible.1Co10)에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식은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고린도전서 8장](https://ref.ly/logosref/Bible.1Co8)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는 [10장](https://ref.ly/logosref/Bible.1Co10)과 함께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 그러나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신’은 결코 없습니다.

✽ ‘다른 신’에게 바친 음식도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됩니다.

✽ 양심에 거리낀다면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 신전에서 제사 때도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 타인의 양심에 상처를 줄 경우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원리에 따라 [25](https://ref.ly/logosref/Bible.1Co10.25)절에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고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예, 그렇습니다.”라는 답을 들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양심이 약한 사람은 거리낌이 있어서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 아예 질문하지 말고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음식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27](https://ref.ly/logosref/Bible.1Co10.27)절에서 식사 초대를 받으면 차려놓은 음식에 대하여 질문하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까?”라고 질문해서 “그렇습니다.”라는 답을 들으면 양심이 약한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질문하지 말고 차려진 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28](https://ref.ly/logosref/Bible.1Co10.28)절 말씀처럼 누군가 “이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입니다.”라고 하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라면 ‘저 사람은 신자라면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고 생각하며 양심이 상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저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면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라며 속으로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28](https://ref.ly/logosref/Bible.1Co10.28)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고 했는데, [29–30](https://ref.ly/logosref/Bible.1Co10.29-30)절에서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바울이 [28](https://ref.ly/logosref/Bible.1Co10.28)절에서는 남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하고서는, [29](https://ref.ly/logosref/Bible.1Co10.29)절에서는 ‘왜 내가 남의 양심에 매여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28](https://ref.ly/logosref/Bible.1Co10.28)절과 [29](https://ref.ly/logosref/Bible.1Co10.29)절이 마치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한 남의 양심을 위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다음, 혹시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하는 방식으로 더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이 자신의 것이든, 비판자의 것이든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해?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데 왜 나의 행위가 비방을 받아야 해?”라는 질문입니다. 남의 양심을 고려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이유는, 남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믿지 않는 일가친척들이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하는 제1, 2계명에 따라 우리는 절대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을 만드는 일은 같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라고 해서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을 그 현장에서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혹시 신자가 있어서 그것을 본다면 ‘신자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어?’라고 생각하여 양심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 있는 불신자들은 ‘예수쟁이라 제사는 안 지낸다고 하면서 제사 음식은 잘도 먹네.’라고 하며 속으로 조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가 제사 지낸 음식을 갖다 준다면, 묻지 않고 먹으면 됩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한 묻지 않고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31](https://ref.ly/logosref/Bible.1Co10.31)절에서 이와 관련하여 윤리의 대원리를 제시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속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우리가 신자나 불신자 앞에서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남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갑니다.

예수께서도 윤리의 대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https://ref.ly/logosref/Bible.Mt5.16)).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본문과 연결하여 보면, 남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동을 보고 그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면 그 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도, 욕이 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녀가 인사성이 바르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뉘 집 자식이야? 누구 아들, 누구 딸이냐?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네.”라고 하면서 그 부모를 칭찬합니다.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듣고, 자식이 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본문 [32–33](https://ref.ly/logosref/Bible.1Co10.32-33)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거치는 존재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게 됩니다.

명절을 보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모처럼 일가친척을 만나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얌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색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일가친척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제사 안 지내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음식 준비하는데 코빼기도 안 내밀 수가 있어?”

일가친척이 우리를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이게 해야 합니다.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달라. 예의도 바르고, 부모도 잘 섬기고, 마음씨도 넉넉해. 제사 안 지내는 것 빼고는 나무랄 데가 없어.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워. 얼마나 착한지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렇다고 하면 예수도 믿을 만해.”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2) 하나님 나라의 확장**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생명사역도 본문은 “무엇을 하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사역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까?

생명사역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참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요 15장](https://ref.ly/logosref/Bible.Jn15)).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수액이 흘러들어와 포도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 접속되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모습이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천국 메시아로서 생명사역을 하셔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접속되어 생명사역을 함으로써 천국을 확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사역을 하는 이유이며 가치이자 동기입니다.

**3) 생명 사역자의 헌신**

매주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예배 후 차량이 나가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주 1천여 명의 성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한 번만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보통의 성도들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식당 봉사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어느 정도 지장을 받습니다. 일주 일 내내 일하고 주일까지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은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1천여 명 분의 국수를 삶기도 힘들지만 퍼내서 담기도 힘듭니다. 자칫하면 뜨거운 국물이 얼굴에 튀기도 하고 뜨거운 국물에 손을 데기도 합니다. 퍼서 옮길 때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남자 성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식당 바닥에 물이 많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불평 한 마디 안 하시고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십니다. 교회에서 돈을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분들은 매주 식당에서 그렇게 헌신하실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주차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것이 상식이지만, 실제로 바깥에서 주차 봉사를 해 보시면 더위와 추위가 실감이 납니다. 요즈음처럼 추운 겨울에는 바깥에 잠시만 서 있어도 얼굴이 얼얼하고 손이 시린데,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차 봉사자들이 왜 그렇게 수고하실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식당과 주차 봉사만 예로 들었지만,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선교와 전도, 예배, 교제, 교육과 훈련, 봉사와 사역 등 5대 분야에서 생명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하십니다.

서울의 두 개의 초대형교회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두 교회와 비교해서 볼 때 우리 대구동신교회 성도들은 헌신이 정말 뛰어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입니다.”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오셨던 전국 교회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구동신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릅니다. 헌신적이시고 친절하십니다. 행복한 미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나옵니다. 생명사역 훈련목회의 열매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주차장에서 짐을 들고 벧엘홀로 들어오시는데 어떤 분이 짐을 받아들면서 “저는 동신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하셨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저는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사역 훈련목회의 열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목회자 한 분이 실수로 우리 교회 유리창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유리는 갈아 끼우면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해 드렸답니다. 잠시 후에 새 유리창으로 갈아 끼워진 모습을 보신 목사님은 “이런 교인이 어디에 계실까요? 동신교회 교인들은 정말 다르시군요.”라고 하셨답니다. 이런 모습이 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들에게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은하수의 별을 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내 자유대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거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접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빚어 가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자신에게는 죄성(罪性)의 ‘육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과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총을 주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와 다양한 실수와 미숙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1)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까지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났지만 이집트에서 살았던 습관과 죄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편 78](https://ref.ly/logosref/Bible.Ps7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그들에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셨고 바람을 통해 무수한 메추라기들을 몰아 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까?”라며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며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빌 2:20–22](https://ref.ly/logosref/Bible.Php2.20-22)). 디모데처럼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편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구동신교회는 부교역자들을 선발할 때마다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신학교육을 마치고 목사가 된 분들이 가능하면 수도권에 머물러 있으려 하고 대구까지 오려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 도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원주민 사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희생이 매우 귀합니다. 선교지 시골로 내려가 원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공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타산적인 모습입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선교 오지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금요기도폭중집회 때 설교하신 문대원 선교사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디모데 같이 진정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역자가 오늘날에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미국 유명 신학교에서 미국 학생들과 경쟁하여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인 데다가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다 마친 상태라, 논문만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룬디로 들어가서 선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곳. 지금도 가끔 기관총 소리가 들려서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입국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90불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것이 부룬디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재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에 들어간다니! 그것도 사모님과 8살짜리 딸과 함께! 지금도 이런 청년이 있나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천국의 보물 같은 인재!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성경을 보나 현실을 보나 이런 인물은 정말 드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걸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2) 하나님 영광 ↔ 내 이익**

물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사역에 헌신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오히려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훌륭한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과 중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모두 듣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찾아와서 호소할 때 딱해 보이는 사정만 보고 동정해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정확한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찾아와서 호소를 하면 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그의 편을 들어주다 보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흑을 백이라 하고 백을 흑이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생명사역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흑이라는 오해나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것인가?’ 하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충성의 맥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마 6:4](https://ref.ly/logosref/Bible.Mt6.4))이 살아 계시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일시적으로는 오해를 받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현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지만, 유학생활 중에 지독히 가난했습니다. 배가 늘 쑤시고 아팠습니다. 역류성 위염과 십이지장 궤양으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어서 얼굴은 해골같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불임 문제로도 7년 간 시달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문제까지 풀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야 공부도 하고 일도 할 것이 아닙니까? 밥도 못 먹게 하시고 몸이 부서져라 공부하게 하심은 어찌 된 일입니까? 결혼하면 거의 다 얻는 자녀도 주지 않으시고, 가슴이 아프게 하심은 어찌 된 일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 해골처럼 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저의 갈등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갈등들이 다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사역을 하실 때 갈등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라도 살 길을 열어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시는 것 같다면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3) 하나님 영광을 위한 훈련**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도록 빚어 가십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40세의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섰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한 모세는 분노하여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출 2:12](https://ref.ly/logosref/Bible.Ex2.12)).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혈기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에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모세는 이집트의 차기 왕(바로)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은 세계 최강국의 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며 훈련시키실 때, 모세가 아니었다면 과연 누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기에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https://ref.ly/logosref/Bible.Heb12)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예외 없이 다 징계로 연단하십니다([히 12:8](https://ref.ly/logosref/Bible.Heb12.8)). 징계와 연단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연단 받은 성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나면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열매를 맺고, 그 결과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회하시는 아버님으로부터 “주의 영광 가린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이 큰 소리 치면서 싸울 때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버지 체면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 무슨 주의 영광이야?’라며 반발을 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어떤 경우에도 가리면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버님의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2000년 초, 제가 동신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천국 가신 후에 보니,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주의 영광 가리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말씀이 아버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평생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다 가신 아버님이 저의 눈에 선하고, 항상 하시던 아버님의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새져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버님의 목회와 생활을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새겨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 전권 주석을 쓰신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서도 교훈을 배웠습니다. 1968년 저의 아버님께서 박윤선 목사님과 함께 어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부터 4년 정도 저는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 저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아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평소에 하루 2시간씩 기도하신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숭실대학교 뒷산 작은 방에서 할머니와 같이 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윤선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30분 정도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숭실대 뒷산 십자가가 세워진 바위 곁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제 심정을 토로하지 않고는 집에 갈 수 없을 만큼 박윤선 목사님의 ‘기도’ 설교에 강력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기도’에 중점을 두셨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광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행 12:21–22](https://ref.ly/logosref/Bible.Ac12.21-22)). 사람들이 신으로 여길 때가 그 대상을 최고로 높일 때입니다. 신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장 높은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때에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면 바로 추락합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행 12:23](https://ref.ly/logosref/Bible.Ac12.23)). 우리는 가장 높은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 드려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행 14:11](https://ref.ly/logosref/Bible.Ac14.11))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우스 신당 제사장들은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와, 역시 내가 대단해! 내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벌떡 일어나 걷게 했으니! 저것 좀 봐! 무리가 환호하잖아? 와, 역시 생명사역의 보람이 이런 것이야!”라고 하며 영광을 스스로 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행 14:15](https://ref.ly/logosref/Bible.Ac14.15)).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과 찬사가 몰려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절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과 찬사를 다 받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아버님과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귀한 교훈을 받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대들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어나서 신학대학원 교수가 될 때까지 35년 동안 숨 쉴 틈 없이, 침 삼킬 틈도 없을 정도로 저를 고난으로 연단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간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가난, 불임과 멸시뿐만 아니라 학업과 목회의 압박감으로 저를 연단하셨습니다. 온갖 고통으로 인한 좌절과 우울,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의 절망감을 겪으면서, 마음의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괴롭히십니까? 저를 괴롭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입니까? 저를 괴롭히시는 것은 저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특별한 인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 고통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과 군인으로 휴가 나왔을 때와 신대원 학생 전도사 시절에 서울과 의정부의 경계지점에 있는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윤선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기도실도 있었고, 기도굴도 많이 있었습니다.

밤에 기도굴에서 기도하면, 박쥐가 천장을 가로질러 찍찍 거리며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귀신처럼 여겨져서 오싹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나에게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을 지경이었으니 이를 앙다물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항변해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 가시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 봐야 쓸데없어. 괜히 내 마음만 괴로울 뿐이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단련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불렀던 항복의 찬송이 바로 425장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1절과 4절의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님의 연단의 손에 제 자신을 맡길 테니, 마음껏 연단하시되 제가 주님과 함께 같이 산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찬송과 기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항복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전보다는 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마음도 편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견딜 만했습니다.

그렇지만 3절에서는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내 병은 낫지 않을까?’ 하는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4절의 일부도 그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라고 했는데, ‘왜 아직 나는 이 모양일까?’ 하는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3절과 4절의 ‘찬송 기도’가 내게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3절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한 시간을 강의하고 나면 푹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요일 2시간 정도 진액을 빼는 설교와 기도회를 인도해도 끄떡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https://ref.ly/logosref/Bible.Jn15)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가 저의 목회의 비결이 되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수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제가 주님께 붙어 있어 늘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늘 생명의 수액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유익”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를 빚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잘 드러나게 됩니다.

**3. 하나님의 역설적 축복**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날수록 나에게 더욱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점점 더 복을 받고 내가 점점 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1) 행복의 역설**

이것은 ‘행복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의 명예와 성공을 다 빼앗길 것 같은데, 나의 명예와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은데, 나의 모든 것을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뿔이 수풀에 걸린 숫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창 22장](https://ref.ly/logosref/Bible.Ge22)).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역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나의 뜻은 사라질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나의 뜻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를 보면 이런 역설이 증명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https://ref.ly/logosref/Bible.Lk9.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늘로부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그냥 올라가시면 될 텐데 굳게 결심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그 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에 ‘올인’(all-in)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낮아지신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우주의 대왕으로 높이셨습니다([빌 2:5–11](https://ref.ly/logosref/Bible.Php2.5-1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천국의 역설입니다. 바울 사도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행복의 역설’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빌 3:10–11](https://ref.ly/logosref/Bible.Php3.10-11)).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사역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생명사역을 하면서 오해 받고 눈총 받고 손가락질 당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생명사역에 헌신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만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5:11](https://ref.ly/logosref/Bible.Jn15.11)). 사도들은 예수의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사역을 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행 5:41–42](https://ref.ly/logosref/Bible.Ac5.41-42)).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사역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과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박해나 고통이 닥쳐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천국의 기름부음 받은 구원자 왕]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사역을 하는 사람은 ‘행복의 역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즐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이며, 제1답은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며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에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https://ref.ly/logosref/Bible.2Sa7)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삼하 7:5](https://ref.ly/logosref/Bible.2Sa7.5)).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견고하게 하리라”([삼하 7:9](https://ref.ly/logosref/Bible.2Sa7.9), [11](https://ref.ly/logosref/Bible.2Sa7.11), [12](https://ref.ly/logosref/Bible.2Sa7.12)).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시 127:1](https://ref.ly/logosref/Bible.Ps127.1)). 내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가족을 지키려 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시 127:1](https://ref.ly/logosref/Bible.Ps127.1)).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사역을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의 지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면 내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행복의 파문**

‘천국의 역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남들이 유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은하수에 걸린 별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매주 식당에서 땀 흘리며 식당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 천여 명의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매주 주차장에서 성심성의껏 주차를 도우니, 수천 명의 성도들이 기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선교/전도, 예배, 교제, 교육/훈련, 봉사/사역, 5대 생명사역 분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에 접속하여 예수의 생명 수액을 섭취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행복의 역설’이 있습니다. ‘행복의 역설’은 ‘행복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사역에 헌신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내’가 행복해지고 ‘남들’이 행복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은 ‘천국의 역설’을 나름대로 깨닫고 있습니다. ‘행복의 역설’이 ‘행복의 파문’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보물 중의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뺏기고 싶지 않은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사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생명사역의 봉사가 “놓치고 싶지 않은 봉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마음을 닮고 예수의 언행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사역을 하여 천국을 확장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사역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워야 합니다. 내가 설령 오해와 미움과 눈총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사역에 헌신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나의 뜻에 집중하고 나와 나의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라는 큰 지평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듣고 만지듯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들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빚어 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행복이라는 ‘행복의 역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죽으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사역에 헌신하면 남들이 유익을 봅니다. 이것이 ‘행복의 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사역에 ‘올인’ 하셔서 ‘행복의 역설’을 깨닫고 ‘행복의 파문’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1. VNP Very Nice People [↑](#footnote-ref-1)
2. VDP Very Draining People [↑](#footnote-ref-2)
3. VIP Very Important People [↑](#footnote-ref-3)
4. VRP Very Resourceful People [↑](#footnote-ref-4)